

| 7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7656.31 | ↓ 코스닥 | 831.23 |
| | (-395.02) | | (-15.84) |
| ↑ 금리 (연율) | 3.780 | ↓ 환율 (원/달러) | 1526.05 |
| | (+0.004) | | (-4.25) |

metro® 경제

현대그룹
승강기·스마트물류
‘쌍끌이’ 전략
04



삼전, 영업이익 109조 ‘매분기 새역사’

(성과급 총당금 반영)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매출 171조, 전년비 129% ↑ 영업이익은 1810% 급상승 AI DC 투자확대 지속 여부 향후 메모리 수요 핵심변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을 발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의 지속 여부가 향후 메모리 수요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와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과제로 꼽힌다

7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각각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27.74%, 영업이익은 56.21%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실적은 지난 1분기 기록한 매출 133조8700억원, 영업이익 57조23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뛰어넘으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84조5994억원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반도체 사업 성과급 총당금이 약 15조~20조원 규모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훌쩍 웃도는 104조~109조원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회성 비용을 감안할 경우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영업이익 100조원을 사실상 처음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견인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확대된 데다 범용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코스피가 395.02포인트(4.91%) 내린 7656.31 마감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4.91% 하락 ‘롤러피’... 7600대로 ‘뚝’

삼전닉스, 6%대 동시하락 ETF·외인매도 등 변동성 키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2톱’이 무너지며 코스피에 ‘검은 화요일’이 덮쳤다. 반도체 투자 과열 논란과 수출 우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 외국인 반도체 매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한꺼번에 겹치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왔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4.91% 내린 7656.3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87% 하락한 831.23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는 이제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코스피시장에서는 32번째

사이드카(매수·매도 각각 16회)가 발동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26회)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이다. 서킷브레이커도 발동했다.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일 증가 대비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



“공급과잉 시대... 돈의 흐름 바뀌어야”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홍성국 헤안리서치 대표 “수축사회, 기득권 해체 겪어 양극화 과정 ‘파시즘’ 경계”

홍성국 헤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와 소비 역량이 줄어드는 데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생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리스크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홍 대표(민주당 전 의원·현 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는 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진행된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두 번째 모임에서 홍성국 헤안리서치 대표가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최규춘 부장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두 번째 모임에서 ‘수축사회,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초래한 과잉생산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해체로 이어지고,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쌓아왔다. 코로나19 때 너무 많은 부채를 늘리면서,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됐는데도, AI라는 발명품이 나오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잘 살기 어려워진 만큼, 사람들도 이기적이고 차별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정부 물가대책, 민생불안 잠재울까

이달 소비자물가 대책 발표 1조 민생자금 방안 제시할 듯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이달 중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물가대책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구 경제정책방향)에 비추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묘수를 꺼내 들지 관심을 끄는데 관건은 교환율 파장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이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민생불안 우려를 다소나마 잠재울 수 있는가의 숙제가 주어졌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올해 1분기 평균 1400원대 중후반을 넘나들더니 2분기를 지나며 1500원대 거래를 굳혔다. 1600원대 진입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 정상화의 길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외환당국은 구두 경고에 더해 실제 시장개입(보유달러 매도) 또는 미세조정을 물밑에서 시도해 왔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원화가 강세를 보여 달러를 사들일 때와는 여건이 다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개입도 분명

한계가 있다. 미국 금리가 하락해야 외국인 투자자 등이 달러화를 내다 팔 텐데 연준의 통화정책방향은 그 반대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설까지 파다한 영향에 글로벌 투자자 및 각국의 달러화 보유 각축이 치열한 모습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 잠시 주춤할 때마다 사모르는, 즉 매수세가 강한 탓에 당국의 개입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소문도 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하순 ‘민생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1조 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질 경제성장전략에서 세부 추진방안 및 후속 조치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될 전망이다. 고등어 등 수입산의 원산지 다변화도 추진하고 들어올 물량도 크게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 폭등과 국제공급망 불안정에 의한 수입물가 오름세에 맞선 지원책이 예상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통방법 시행 첫날... “정통방법, 허위정보 방지”야 “입찰막법”
▲국조특위, 중앙선관위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실 대응 질타 /사진 뉴시스

▲이준석, ‘무섭노’ 아이돌 비판 조국 겨냥 “연예계 인사에 이념적 공격 안돼”
▲방사청장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결정적 차이”

▲첫 ‘농림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호, 우주발사
▲장윤기 부친 완전 무죄?... ‘교사죄’ 가능 여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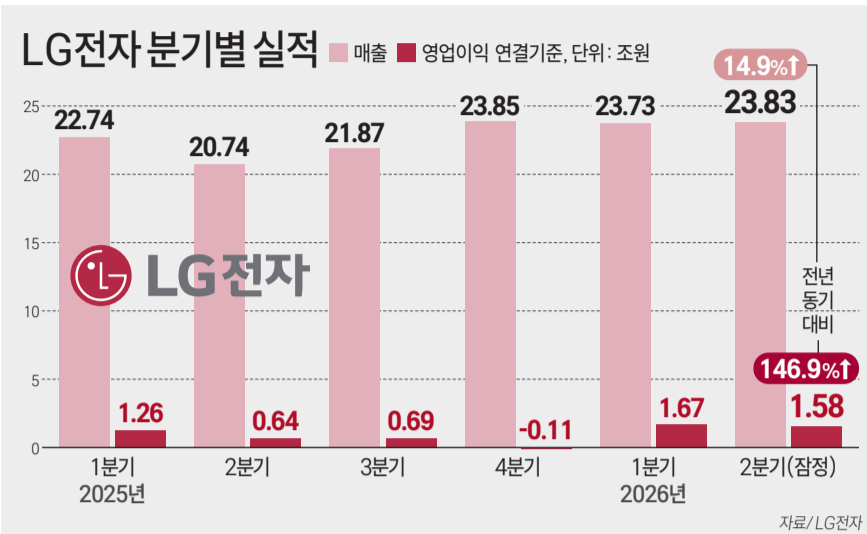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146% ↑... 상반기 역대최대 실적

매출 23.8조, 영업이익 1조5788억
가전·TV·전장 등 주력사업 성장세
이달 말 사업본부별 실적 발표 계획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과 냉난방공
조(HVAC), 전장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
입어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G전자는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매
출액 23조 8297억원, 영업이익 1조 5788
억원의 잠정실적을 7일 발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9%,
146.9% 성장했다.

1분기를 합한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
액은 47조55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조2525억
원으로 71.3% 늘었다. 특히 상반기 영업
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2조4784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
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LG전자의 2분
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2조6184억원,
영업이익 1조7400억원이었으나, 실제 잠정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약 47% 상회했다.
회사는 2분기 가전과 TV 등 주력사업

에서 프리미엄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판
매가 늘며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
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애어컨 판매가 상승했고, 전장
사업의 매출 확대 역시 지속되며 중동 전
쟁 등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를 상쇄했다

는 분석이다.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에 더해 webOS, 구독, 온라인 등 고
수익 사업이 성장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
다. 인력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지난 4월
실시한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지만, 사업
전반의 원가경쟁력 강화와 비상경영 체제
운영 등으로 수익성 영향을 최소화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수출물량에 납
부한 관세액의 환급 절차를 진행해 왔으
며, 환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일회성 수
익을 인식했다. 다만 관세 환급액을 제외
하고 보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
비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LG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실적설
명회를 통해 2026년도 2분기 연결기준 순
이익과 사업본부별 경영실적
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1면 '공급과잉 시대...'서 계속

“완전히 달라진 사회상 회사경영 새 전략 필요”

이러 “수축사회에서 서로 경쟁하는 과
정에서 기득권도 해체되고 있다. 2년 전에
는 의사들이, 지금은 검사들이 기득권 해
체를 겪고 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
다”며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속됐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미래에 대
한 전망도 바뀌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제
도나 생각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에 머
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대표는 양극화 과정 속에서 출
현하는 파시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일부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상황에서 파시즘이 부상하고 있다. 모
두가 잘 살 수는 없으니 우리끼리만 잘 살
자는 사상이 출현했다. 이런 양상은 좌우
를 가리지 않는다”며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 때, 무게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들
기 어려워진다. 좌파는 좌파끼리, 우파는
우파끼리 해먹는 상황에서 함께 살기 어
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전환점에 선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과거와의 단절과 과감한 전
략,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할 때다. 회사의
경영과 관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
다. 19세기 말 철도 산업과 20세기 초 비
행기의 출현이 세상을 순식간에 바꿨던
것 처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대응해
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인성진 기자 asj1231@

>> 1면 '정부 물가대책...'서 계속

할인쿠폰 등 대규모 지원

중소기업과 취약층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병행한다고 했다. 민생 안정을 위
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뜻
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3.2% 뛰었다. 2
년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말까지 '2% 이하 관리'를 정
책목표로 내걸었다. 그러기 위해선 수입물
가가공식품 물가 등이 진정돼야 하는데,
국제 원자재·원재료 값 급등에 따른 도미
노 상승과 장바구니물가 자극 현상 등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도리어 인플레
에 불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도 있
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 속
물가급등) 우려는 찾아들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제투자은행 등은 올해 아시
아 각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
다. 우리나라도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1%대 중후반을 찍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일 퍼
낸 '농식품 소비자물가지수 개선 과제' 보
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획일적 지원방
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 가격 변동을 조기에 예측하
고 바우처나 할인지원 등을 '차등' 제공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가구 특성을 반
영해, 농식품 소비자물가지수를 월별 또
는 분기별로 산출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
로 언급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

홈쇼핑업계, 송출수수료 완화 '촉각'... 역성장 탈출 기대

산업침체 지속... 정부, 규제합리화
업계 “내달말까지는 합의 이뤄야”

정부가 침체에 빠진 홈쇼핑 산업의 경
쟁력 회복을 위해 매년 2조 원이 넘는 송
출수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그동안 사
실상 업계 자율협상에 맡겨졌던 송출수
수료 협상에 정부의 중재 기능을 강화하
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서, 수년째 역성장을 이어온 홈쇼핑 업계
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로 어려움
을 겪는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송출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대
가검증협의체의 역할을 조정안 산정 및
제시 단계까지 강화하는 '홈쇼핑 상생·
활력 제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협상부터 실

질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번 대책은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
이 2020년 193분에서 2024년 139분으로
매년 평균 2.21%씩 급감하는 등 고사 위
기에 처한 홈쇼핑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한국TV홈쇼핑협회 자료를 보면
홈쇼핑 사업의 역성장 지표가 뚜렷하다.

지난해 주요 7개 TV홈쇼핑 사업자
의 전체 거래액은 전년 대비 5.1% 감소
한 18조 5053억 원을 기록했다. 방송매
출액 역시 2021년 3조 171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6181억 원으로 4년 연속 줄
어들며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
웠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926억 원으
로 전년 대비 1% 소폭 늘었으나 최근 3
개년 평균 영업이익은 2009년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한다. 주 소비층의 고령화
도 심화되어 핵심 구매층이던 40~50대
여성 비중은 43.8%에서 36.9%로 크게
축소됐다.

이처럼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위축되

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사업자(IPTV-케
이블·TV·위성방송)에 채널 배정 대가로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은 도리어 심
화되고 있다.

2016년 1조 2086억 원이었던 7개 법인의
송출수수료는 지속해서 상승해 2023
년 1조 937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
난해에도 1조 921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
액을 유지했다. 전체 12개 홈쇼핑 사업자
로 범위를 넓히면 송출수수료 총액은 2조
443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유료방송사업
자 전체 방송사업 매출(7조 1701억 원)의
34.1%를 차지한다.

특히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매출액 대
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무려 73.4%에 육박
해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방송 매출의 대
부분을 수수료로 지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가
입자 감소에 따른 자체 방송수수료 매출
하락 분을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보전하
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케이블TV의 방송수수료 매출

비중은 2016년 38.8%에서 2025년 34.15%
로 줄어든 반면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
은 35.4%에서 42.4%로 늘었다.

업계는 오는 8월 말까지 합의를 이뤄야
하는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정부의
중재안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공영홈
쇼핑을 제외한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비중을 10%p 단계적으로 인하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송출수수료
감면 효과와 함께 홈쇼핑 업계의 전반적
인 경영 효율성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임광기 한국TV홈쇼핑협회 협회장은
“5월 정부가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은 규제로 얽혀있던 홈쇼핑 산
업의 숨통을 트우는 획기적인 정책 전
환”이라며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송출
수수료 협상 환경을 보다 공
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K-방산, 나토 공급망 정조준... 현지생산·공동개발 등 공세

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업계, 주요국 방산수주 팔 걸어

K-방산이나토(NATO·북대서양조약
기구)정상회의를 계기로 남기 경쟁력과
대량생산 능력을 앞세워 유럽 공략에 나
선다.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방산업계의 생산능
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K-방산은 현지
생산과 공동개발 등 공세적 전략을 통해
나토 공급망 편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K-방산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
에 일단 실패했지만 잠수함개발 원조국
인 독일과 초박빙의 접전을 벌인 만큼 그
위상은 방산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될 전
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파트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너 4개국(I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세
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
국들과 방산 외교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석을 G2G(정부 간 거래) 성격이
강한 방산 협력을 본격 확대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마크 워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월
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 방산업체 대상 무기 주문이 약 3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생산 과부하 상황을 인
정했다. 워터 사무총장은 지난 1일 파이

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도 유럽의 생
산 병목이 나토 밖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배경이라며 한국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
다. 한국산 선택은 선호보다 유럽 내 생산
능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결과도 나토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
례로 꼽힌다. 한화오션은 독일 TKMS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
다. 업계에서는 성능보다 나토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유럽 방산 공급망 결속 등
지정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 공급망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현지화 투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폴란드
WB그룹과 60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J
V)을 설립해 천무용 유도탄을 현지 생산

할 계획이다. 루마니아에는 생산시설을
구축해 오는 2027년부터 K9 자주포와 K
10 탄약운반장갑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결합해 유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
드 K2 전차 2차 물량 중 61대는 현지 조
립 생산 방식의 K2PL 모델로 추진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LI
GD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라인
메탈 자회사와 JV 설립을 추진하며 유럽
방공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KAI는 폴
란드 현지 업체와 FA-50 후속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유럽은 권역별 수요가 달라 국가별 맞춤
형 전략이 중요하다”며 “러시아 위협이 큰
동유럽은 현지 생산을, 서유럽은 공동개
발과 공급망 진입을 요구하
는 만큼 이에 맞춘 전략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tha@



반도체 호황의 두 얼굴... 세수 늘고, 물가 우려는 커졌다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펀드 추진
청년·전략산업 투자 재원 활용
반도체 호황에 기업 실적 개선

성과급·소비물가 압박 우려
6월 소비자물가 3.2% 기록

반도체 호황이 정부 재정과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펀드로 묶어 청년 지원과 국가전략 산업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은은 반도체 호황이 성과급과 소비, 자산시장으로 번져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까지 오른 가운데 신현송 한은 총재가 물가 안정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한국 경제는 재정은 확장하고 통화정책은 긴축하는 엇갈린 정책 조합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다. 펀드는 국가 대형 투자와 청년층 주거·창업·고용 지원, 경제 양극화 대응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반도체와 퍼지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중심의 한 대형 산업 프로젝트와도 맞물린다.

정부 입장에서 반도체 초과 세수는 경기 회복의 과실을 장기 성장과 분배로 돌릴 수 있는 정책 재원이다. AI 반도체 수

요가 폭발하면서 기업 실적과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미래 산업과 청년층 지원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 4000억원, 매출을 171조원으로 집계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메모리 가격이 오

르고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과 세수에는 호재지만, 자산시장에는 기대와 고평가 부담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정부 재정과 기업 실적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업 이익은 성과급과 배당,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소비와 자산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경기에는 긍정적이지만 물가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는 한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한은은 이미 기술기업 성과급 등 임금 상승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중기 목표인 2%를 웃돌 수 있다고 봤다. 단순히 유가나 환율 같은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임금과 소비를 통한 2차 파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반도체 세수를 성장과 분배를

위한 실탄으로 보지만, 한은은 그 실탄이 민간 수요와 자산시장으로 빠르게 흘러갈 경우 추가 긴축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물가가 3%대에 올라선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성과급과 소비, 주가, 부동산, 재정지출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 한은의 금리 선택은 복잡해진다.

만약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기대하는 민간투자와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같은 반도체 호황이라도 정부에는 재원이요, 한은에는 물가와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는 수요 압력인 셈이다.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6월 물가가 3%대를 웃돈 데다 성과급과 임금, 소비를 통한 2차 파급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수 있다"며 "금리를 제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반도체 고점론 부상... 삼성전자, 최대 실적에도 주가 급락

29만6000원 마감, 전일비 6.92% ↓
어닝서프라이즈에도 外 매도세
차익실현·메모리 편중 부담 작용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4000억원으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사실상 글로벌 분기 이익 1위에 올랐지만 주가는 장중 10%대까지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는 호실적 선반영에 메모리 편중, 업황 고점 논란까지 겹치며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역대급 실적을 이끈 것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다. 주요 D램 제조사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에 우선 배치하면서 범용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됐고 범용 D램 가격은 지난달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사옥.

AI 서버에 들어가는 6세대 HBM인 HBM4 효과도 더해졌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AI 반도체용 메모리로,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전송 속도를 업계 표준보다 대폭 끌어올린 초당 11.7기가비트(Gbps)급 고성

능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을 일회성 호황이 아닌 반도체 사업의 체질 개선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박준영 한화증권 연구원은 "범용 D램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고 파운드리도 사실상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며 "11.7Gbps HBM4 공급 확대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HBM 분야의 추격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171조원, 영업이익은 89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9.3%, 1810.3%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영업이익률은 52%로 창사 이래 처음 50%를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인 85조 494억원을 약 5%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다.

달러로 환산할 경우 약 580억달러로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영업이익 535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 총당금 약 17조원이 이번 분기에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 이익은 100조원을 웃돈다.

반면 이 같은 기록적 실적에도 이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했다. 반도체주 중심의 매도세가 확산되며 코스피에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증권가에서는 세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지는 동안 호실적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컨센서스를 웃돈 발표가 오히려 차익실현의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회사의 이익이 메모리에 집중된 점도 매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분기 이익 대부분을 메모리가 책임진 만큼 메모리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전사 이익

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병건 D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성과급 총당금을 제외해도 실적은 개선됐지만 비메모리와 DX(다바이스경험) 부분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메모리 업황이 고점에 근접했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논란도 매도세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공급 측면 지표는 강세 지속을 가리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낮은 재고 수준과 강한 재고 확보 수요를 근거로 3분기에도 범용 D램 가격 강세를 전망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공급은 최소 내년 4분기까지 수요 증가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막연한 피크아웃 우려보다 메모리 사 이클의 위치를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허정훈 기자 koogija_tea@



AI 메모리 호황 속 DX 수익성 부담 확대

>> 1면 '삼전, 영업이익 109조...'서 계속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호실적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AI 서버용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D램과 HBM 등 메모리 제품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양산 출하하는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과 수율 안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회사는 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사내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실적을 계기로 DS 사업부와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사업부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D

X 사업부의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완제품 사업은 부품 가격 인상을 제품 판매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수익성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반도체 수요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끌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되면 메모리 수요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거품인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대체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투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AI 수익성 및 수요가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반도체 급락에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

>> 1면 '4.91% 하락 롤러피...'서 계속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가 20분간 중지된다. 역대 12번째,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팔자'에 동반 폭락, 각각 6.92%(증가 29만 6000원), 6.06%(220만 1000원)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돼 이른바 '셀온(sell-on)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것' 현상'이 발생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전문가는 날뛰기 장세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반도체 수출 현상을 꼽는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과거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25~29%를 차지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까지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며 "시가총액 1·2위가 모두 반도체 기업인 구조에서 레버리지 투자까지 더해지며 지수의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변동성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반도체 등업장에서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 하는 포모(FOMO) 심리에 이끌려 지난 한 달(5월 27일~6월 22일) 동안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8조 9000억원어치(전체 순매수의 92%)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해당 상품의 매매회전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 금융 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면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 기자 gath@

건설 침체 뚫는다... 승강기 유지보수·스마트물류 ‘쌍끌이’

⑰ 현대그룹



◆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둔화에 유지보수·신사업 대응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 승강기 사업의 핵심 계열사다. 1984년 설립 이후 국내 승강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고 현재 국내 1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 법인과 60개국 이상의 대리점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갖췄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국내 신규 설치 시장 둔화에 대응할 기반으로 꼽힌다. 중동과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수주 레퍼런스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해외 사업은 그룹 수익 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국내 1위 국내 건설경기 부진에 시장 위축 수익성 방어, 유지보수 등으로 대응

AI·IoT 등 기반 ‘MIRI’ 서비스 오픈 API 기반 승강기-로봇 연계 고층용 승강기 모듈러 공법 상용화 UAM 인프라로 기술 적용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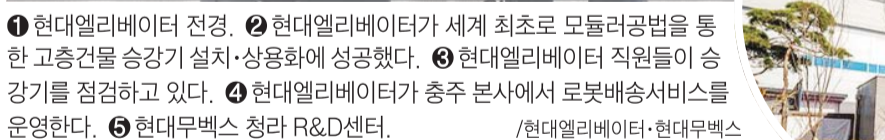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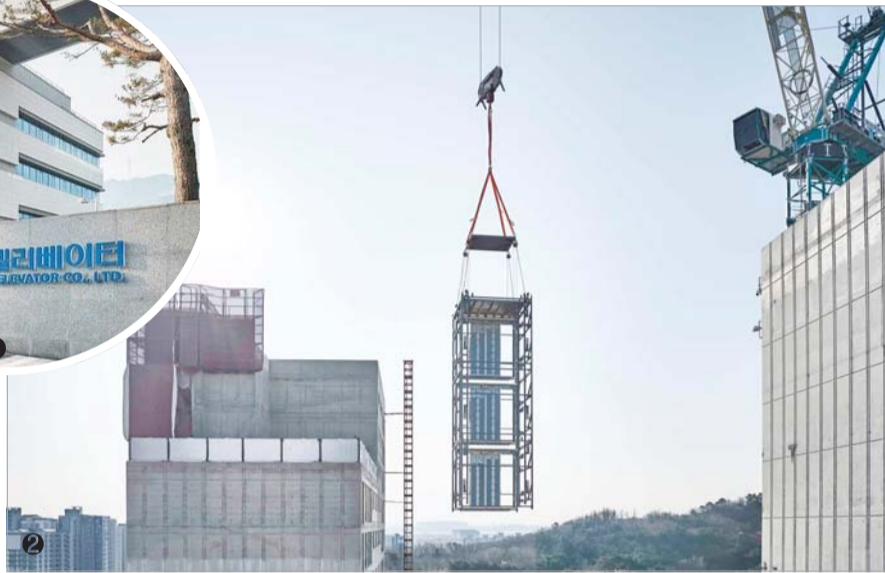
국내 승강기 설치 시장 위축은 실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4695억원, 영업이익 2096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4%, 7.2% 줄었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16.3% 감소했다. 2025년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전년보다 25.9% 줄면서 신규 설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제품 고도화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유지보수와 해외 사업 비중을 높여 국내 신규 설치 시장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유지보수 사업은 신규 설치 부진을 완화할 기반으로 꼽힌다. 신규 설치는 건설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만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은 기존 설치 대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AI·IoT·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서비스인 ‘MIRI’를 통해 승강기 원격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승강기와 로봇을 연결하는 사업도 확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픈 API를 기반으로 KT,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등과 승강기-로봇 연계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뉴빌리티와 자율주행 로봇과 엘리베이터 연동 서비스 및 표준 개발 협력에 나서며 승강기를 스마트빌딩과 물류 서비스를 잇는 수직 이동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건설 현장과 미래 모빌리티를 겨냥한 신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4월 고층용 승강기 모듈러 공법 ‘이노블록(ENOBLOC)’을 상용화했다. 승강기 주요 구조물과 부품을 공장

현대그룹이 승강기와 물류자동화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이동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승강기 신규 설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와 고부가 승강기, 로봇 연동,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대무브스는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트윈 기반 운영 기술을 앞세워 제조·물류 현장의 이송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두 계열사의 사업이 로봇·스마트빌딩·미래 모빌리티 수요와 맞물리면서 현대그룹이 건설경기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이동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과 시공 안전성 개선을 겨냥한 기술이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센터파크 현장에서 27층형 적용 실증과 품질 검사를 마치고 20층 이상 공동주택 시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사업도 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직 격납형 버티포트 ‘H-PORT’를 통해 승강기 기술의 적용 범위를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로 넓히고 있다. H-PORT는 UAM 기체의 이착륙과 이동, 충전, 격납 기능을 수직 구조 안에 배치한 개념으로, 넓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 본사에 3층 규모의 H-PORT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이며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대무브스, 스마트물류로 제조·물류 현장 공략

현대무브스는 현대그룹의 물류자동화 사업을 맡고 있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과 자동화 설비 공급이 핵심 사업이다. 무인인송로봇(AGV), 자율주행 모바일로봇(AMR) 등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제조·물류 현장의 이송과 보관, 출고 과정을 효율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무브스의 경쟁력은 개별 장비보다 물류 공정 전반을 묶어 설계·운영하는 통합 역량에 있다.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에서는 입고부터 보관, 피킹, 분류, 출고까지 자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어 창고관리 시스템(WMS), 창고제어시스템(WCS), 로봇 제어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 기반 스마트물류 기술도 확장하고 있다. 현대무브스는 올해 AW 2026에서

AMR 군집 운용, 오피스터, 저상형 AGV, 엘리베이터 연동형 달리바리 로봇, 3D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관제 기술 등을 선보였다. 물류 설비의 이동·보관·분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앞세워 자동화 사업을 하드웨어 공급에서 운영 최적화 영역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해외 사업은 기존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대무브스는 한국타이어 미국·유럽 공장 물류자동화 수행 경험을 확보했고, 미국·헝가리·캐나다 등에서 물류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북미와 유럽 제조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생산 효율화 요구가 커지는 만큼 통합 물류자동화 솔루션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주잔고도 향후 매출 전환의 기반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브스의 수주잔고는 3732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물류자동화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존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지난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회성 총당금 영향이 줄어들 경우 수익성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현대무브스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963억원, 385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무브스, 스마트 물류센터 ‘핵심’ 물류공정 전반 통합 설계·운영 WM, WCS, 로봇제어 기술 결합 기존 경험 기반 해외사업 확대도 지난해 3732억 수주, 자동화 견인

◆ 수익성 회복·해외 리스크 관리가 관건

현대그룹의 이동·물류 솔루션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변수도 남아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승강기 신규 설치 수요 위축이 이어질 수 있고, 해외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별도 기준 사업 계획 대비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수주 실

적이 모두 전망치를 밑돈 만큼 올해 제시한 사업 계획의 달성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현대무브스 역시 해외 프로젝트 확대 과정에서 수익성 관리 부담을 겪은 바 있다. 2025년에는 해외 사업 관련 일

회성 총당금 등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북미·유럽 등 해외 수주 확대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AW 2026과 MODEX 2026 등 글로벌 전시 활동이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도 향후 수주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평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승강기 제조·유지보수와 물류자동화 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건물과 산업 현장의 이동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신규 설치 시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지보수, 해외 승강기, 스마트물류 수주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성장성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천만 관객

국민 감독

장항준의

빛나는

인생솔루션

KB골든라이프 토탈케어 솔루션

자산관리

전국 771개* 영업점에서 시니어 전문 상담 및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 영업점 수, 26.3월말 기준.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은퇴설계

퇴직연금 등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 기반의 안정적인 은퇴자산 관리 솔루션 지원

상속·증여

유언·상속 가능 포함된 신탁상품 및 증여 플랜 상담서비스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

돌봄·요양

주거·돌봄·요양 관련 기초 상담 등 시니어 라이프 정보 제공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수수료(사용자부담금)개인형RP: 연0%~0.45%, (기업자부담금)개인형RP: 연0.21%~0.28% ※[신탁] 운용되는 자산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보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연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므로,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시 관련 법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091호(2026.06.29~2026.12.28)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제2026-2816-1호(2026.06.24), 유효기간 2026.06.24~2026.12.28까지



더 알아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정책 대신 네거티브... 지도부 '경고장'

“과도한 비방, 당 차원 강력한 조치”
김민석·정청래, 서로 날 선 공방
선호투표 유지, 순회경선 계획대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유력 주자들간 공방으로 조기과열되는 모습이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비방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과도한 네거티브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날(6일) 당 대표 출마선언에서 직전 1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맹폭하자 친청(친정청래)계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이성운 최고위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김 전 총리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라며 김 전 총리를 공격했다.

이에 김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선언을 마친 김민석 전 총리(왼쪽)와 출마가 유력한 정청래 전 당 대표. /뉴시스

두구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똑같은 논리로 김 전 총리의 그날 밤 행적을 캐물었다”며 “같은 당이더라도 생각이 다를 순 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장

동 때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그때 (계엄 해제)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곤욕을 치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이 같은 당인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공격받았던 때를 떠올린 것으로 풀

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까지 자신을 겨냥한 김 전 총리의 비판을 듣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7일 SNS를 통해 자기 정치의 폐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 전 대표는 ▲당직 인사 탕평책 ▲언론 인터뷰 자제 ▲공정한 공천 ▲1인1표제 도입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자기 정치 폐해를 반박하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저는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측 고위관료, 현직 국무총리가 TP 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당대표 로망’ 발언은 김 전 총리가 올해 2월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면서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대표도 로망이었다”고 한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대표 선거 유력 주자 중 1명인 송영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출마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당 대표 유력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가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전당대회 후보등록 전부터 조기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학영 전 준비위원장이 나섰다.

이 전준위원장은 이날 전준위 회의를 주재하고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합과 비전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당내 구성원 간 소모적인 비방이나 네거티브가 아닌 미래와 비전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구성원과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의 구성원들은 전당대회 기간 중 엄정한 중립 의무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당선자를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에서 실시돼 일각에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일정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전당대회 조기 과열 양상을 고려해 순회경선 일정은 3주간 각 주 일요일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공포정치’ vs ‘기강 확립’... 국민의힘 내홍

친한계·소장파·당 지도부 간 갈등
장동혁 “복당 영구 금지까지 검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당원들로부터 징계 요구안이 접수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국면에 돌입하자 7일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 윤리위는 전날(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를 전후로 당원 등으로부터 접수된 70여 건의 징계 요구안을 검토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운 친한계 의원들과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나섰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으로 이루어진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

과 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장 대표의 공포·징계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노선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선 참패 후 반성과 성찰을 통한 통합과 포용의 덧셈 정치는 안 하고, 다시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징계는 지난달 있었던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부산에 내려가 한 의원과) 치킨 먹은 사람을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미국에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건 징계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6선)인 조정태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자신에 대한 징계 심의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겠다고 뜻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뒷인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뒷 박덕흠 부의장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징계 요구안이 접수된 상태다.

친한계와 소장파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당권파도 이에 질세라 반박에 나섰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안과 미래’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중대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마저 정치 보복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공당 구성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징계를 두고 정적 제거니 뉘셈 정치니 하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안과 미래도 없이 당을 흔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그 이름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반납하기 바란다”며 “당원들이 자긱지긱 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열 정치”라고 보았다.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징계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 대표가 당내 ‘해당 행위자’의 복당 영구 금지를 언급하며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당원·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수 수습기자 gws0325@

李, 나토·몽골 순방 방산·공급망 협력

나토 정상회의서 韓 기업 홍보
몽골 15년 만에 국민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몽골을 국민 방문하는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국가) 대표들과 함께 소인수회담에 참여하러 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주제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튀르키예 도착 저녁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서 양국의 우호를 다진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8일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으로, 최근 유럽 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등으로 나토 회원국 등 유럽 각국은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인 오후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15년 만에 몽골을 국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한·몽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ETF 쏠림에 칼 뺀 민주당... 제도 개선 착수

“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개별 주식 1종목의 단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고수익 파생형 상장지수펀드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시장쏠림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가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면서 “실제 올해 5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ETF 시가총액 비중이 73%

까지 높아진 반면, 그 외 ETF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코스피 시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 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산적 투자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할 자본시장의 자금이 일부 고위험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중견기업과 코스닥시장의

지금조달 가능성은 약화되고 시장 왜곡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6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가분수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KT 장기고객님을 초대합니다

2026년 7월

| | | | | | | |
|----------|----------|----------|----------|----------|----------|----------|
| 日 SUN | 月 MON | 火 TUE | 水 WED | 木 THU | 金 FRI | 土 SAT |
|----------|----------|----------|----------|----------|----------|----------|

KT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장기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뮤지컬 '그날들'에 초대합니다

MUSICAL

그날들



출연 - 박세힘·엄기준·윤시윤·고창석



자세히 보기

초대드림 · 7.25(토) 뮤지컬 '그날들'(1,200석) 초대드림 | 모집기간: 6.19(금)~ 7.8(수)
· KT 위즈파크 캠핑존 초대드림 | 월 별 상시 정기 초대

쿠폰드림 데이터, OTT/지니TV/로밍 할인 등
14종 쿠폰드림

KT 장기고객 초대드림/쿠폰드림은 KT 휴대폰, 인터넷, IPTV의 각 이용기간을 합해 5년 이상 되는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초대드림 응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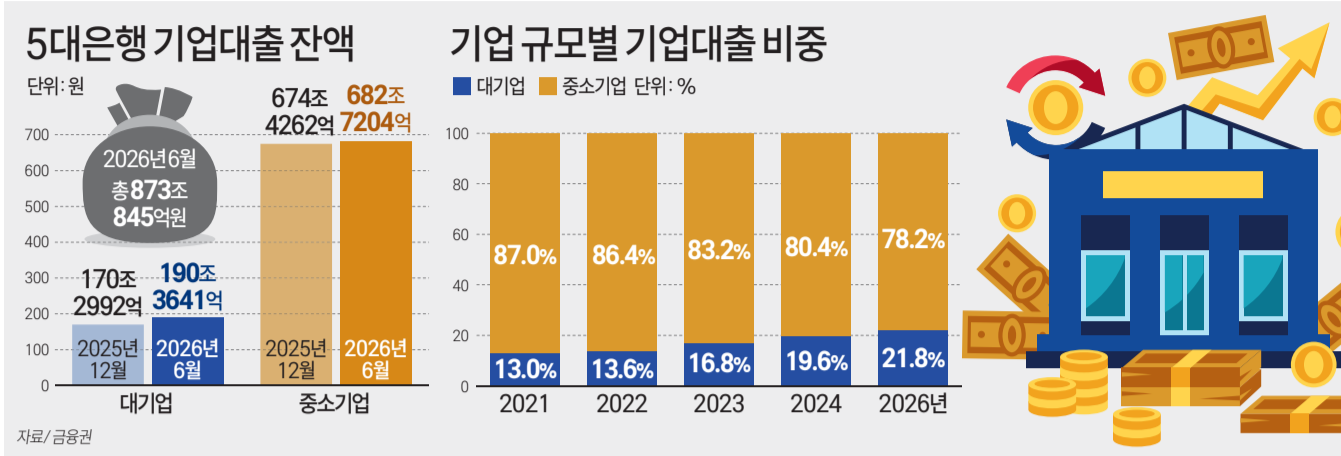
대·중기 은행대출 양극화... '고신용' 대기업에 자금 몰린다

5대 은행 기업대출 잔액 874조
대기업 20조 늘때, 중기 8.3조 늘어
'경기둔화' 中 小 信 用 위 험 도 상 승
첨 단 산 업 중 심 대 규 모 투 자 영 향

올 상반기 은행권에서 중소기업대출보다 대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어진 영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도 격차도 확대되면서 대출이 대기업으로 더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6월말 기업대출 잔액은 873조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28조3591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말(+9조1158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졌다.

기업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대기업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90조3641억원으로 20조 649억원 늘었다. 특히 대기업대출은 지난



달에만 4조9285억원 늘며 전월 대비 2.66%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682조7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증가액은 8조2942억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에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대기업 대출 비중은 상반기 기준 2021년

13%에서 2022년 13.6%, 2023년 16.8%, 2024년 19.6%, 지난해 20%를 거쳐 올해 21.8%까지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7%에서 78.2%로 낮아졌다.

이처럼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 크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대기업들의

은행 대출 수요도 증가했다. 회사채 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예전만 못해진 점도 은행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 입장에서도 우량 기업 위주의 대출 확대가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금융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

되는 모습이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여섯 배 이상 높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3%로 1%를 넘어섰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82%를 기록했다.

은행권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등에 집중돼 있어 업황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량 채권과 유동화 규모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서 대출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고객 의미 잊지 말고, 초심을 기억해야”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
땀겨요 할인쿠폰 이벤트 진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7일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신한은행은 창립 당시 대한민국의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오늘의 신han을 있게 해준 고객의 의미를 잊지 말고, 언제나 창립 당시의 초심과 간절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 슈퍼 솔(SOL)’을 통해 ‘슈퍼 SOL X SOL LINK 땀겨요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건강 플랫폼과 연계한 ‘신한 20+ 뛰어요’와 ‘신한 50+ 걸어요’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

게 마이신han포인트와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프로그램 ‘기억록북’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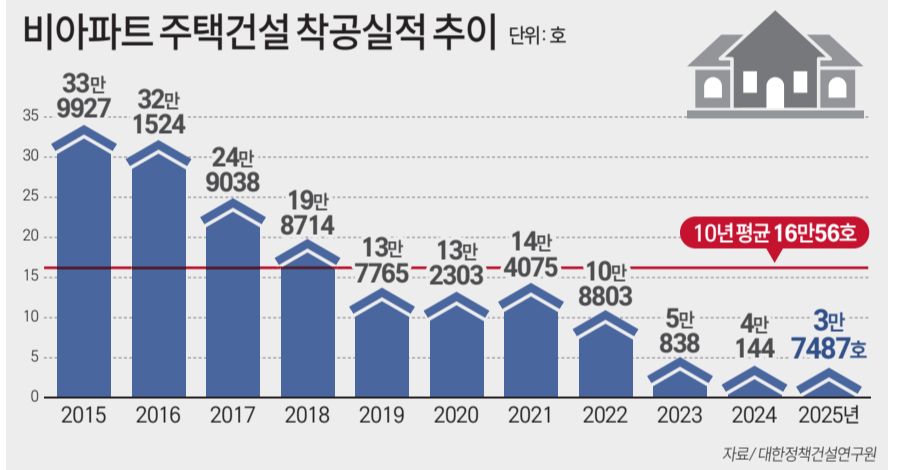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감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윤남노 셰프가 특별 메뉴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음악단 ‘신한 SOL레미오’가

본점 로비에서 출근·점심·퇴근 시간대에 공연을 펼친다.

창립 기념 주간에는 임직원 자녀를 위한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등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원행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오는 11일까지 임직원이 참여하는 인택트 러닝 및 플로깅 행사 ‘신한새싹런(RUN)’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 참가비와 은행의 매칭기부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소방관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7B’ 창립이념에 부합하는 7개 기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해온 고객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비아파트 착공실적·수요 동시 위축

작년 전국 주택 착공실적 28만호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수준 그쳐
비아파트 착공 3.7만호, 23% 불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주요 공급원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만호에 달하는 매입입대로 비아파트 시장 회복과 임대차 안정을 모두 잡겠다고 나섰다지만 수요 위축에 효과는 미지수다.

7일 대한정책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27만8957호로 최근 10년 평균(53만584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주택 착공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착공실적은 3만7487호로 최근 10년간 평균치(16만56호)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착공실적 가운데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3% 수준으로 10년 전 39%에서 크게 하락했다.

착공은 통상 2~3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전체의 착공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비아파트는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공급 기

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입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임대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6만 6000호를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5만 4000호가 신축매입입대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고 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최근 수도권 임대차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공급수단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비아파트 수요 역시 위축됐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제 전세사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서울 주택 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7.6%에서 지난해 30.5%까지 낮아졌다.

그는 “전세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본격화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며 “비아파트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드사, 리볼빙 등 단기대출도 ‘금리역전’

고신용자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15.14%→15.20%로 오르고
700점 이하 19.15%→19.10%

카드사들의 ‘금리역전’ 현상이 단기대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장기대출인 카드론에 이어 현금서비스, 리볼빙에서도 고신용자 금리는 상승하고, 저신용자 금리는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지난 5월 현금서비스 전체 평균 금리는 18.12%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평균 금리는 하락했으나 신용등급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 평균 금리는 15.14%에서 15.20%로 상승한 반면,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19.15%에서 19.10%로 하락했다.

리볼빙도 다르지 않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서비스 금리 평균은 지난 4월과 5월 17.34%로 같았으나 신용 구간별 차이가 생겼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 평균 금리는 15.03%에서 15.06%로 상승했고, 800점 이하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18.98%에서 18.96%로 떨어졌다.

장기대출 상품인 카드론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신용도별 금리 역전 현상이 단기대출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역시 고신용자 평균 금리는 10.52%에서 10.99%로 올랐고, 저신용자는 17.18%에서 17.09%로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금리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책정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신용 리스크’였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이 높으면 금리를 낮게 산정하고, 신용이 낮으면 금리를 높게 산

정해 연체 위험을 방어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 정책이 꼽힌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분을 늘린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것.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최대 80%를 예외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도 보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카드사들이 총량 규제를 달기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의 중저신용자 중심 자금 공급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신업계는 이달 중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10월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성 보증부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차그룹, 협력사 공급망 상생 강화... 대금지급 평균 10일

1·2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대금지급 조건 개선·상생결제 확대
자율주행 등 교육·기술 지원 강화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1·2·3차 협력사를 아우르는 공급망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금융·기술·교육 지원을 확대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더블트리 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1·2차 협력사들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와 서강현 현대

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12개 계열사 대표, 150여개 1·2차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와 SDV, 자율주행,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수소에너지,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사업 확대에 따라 협력사의 역할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파트너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한다. 협력사 대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훨씬 빠른 평균 10일 이내 지급하고,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역시 지급일이 단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1·2·3차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협력사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실적을 평가와 인센티브에 반영해 제도 활용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현대차·기아는 SDV와 전동화, 자율주행 분야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AI·소프트웨어, ESG,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교육을 확대한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관련 첨단 부품 협력사를 육성하고, 현대로템은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현대오트모터는 AI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대위아는 수출입 인증 지원으로 협력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힌다. 현대캐피탈은 무상 특허 제공과 청년

인력 채용 지원,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현대제철은 동반성장펀드와 납품단가 연동제 교육을 통해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대트랜시스도 ESG 교육과 컨설팅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와 현장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노션은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구독료를 지원하고 기술자료임치제 운영, 입찰 탈락 업체에 대한 시안 비용 지급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강현 사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쟁력"이라며 "전동화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룹의 역량을 모아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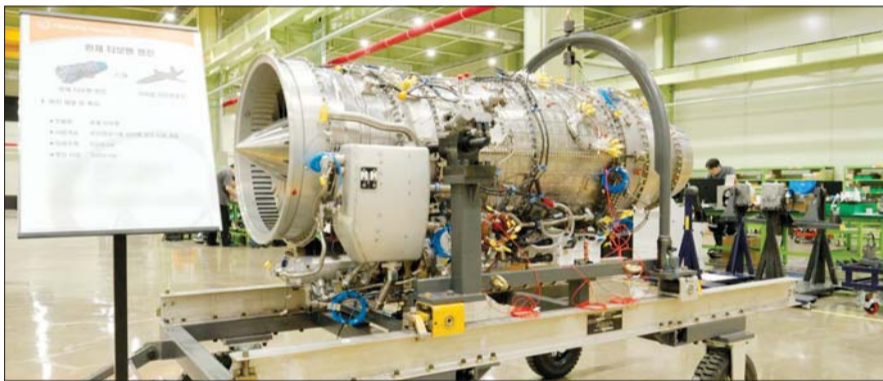
ysw@metroseoul.co.kr



metro

한화에어로, 무인기용 항공엔진 시제 공개

항공엔진 초도시제 지상시험 착수식
독자기술 개발... 수천시간 이상 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생산된 5500파운드 터보팬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용 항공엔진 시제를 처음 공개했다. 수천 시간 이상 운용 가능한 장수명 항공엔진 개발 시제가 국내에서 완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인기 국산화와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국산 장수명 항공엔진 초도 시제 지상시험 착수식'을 열고 저피탐 무인편대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중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과연 주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업체들이 각종 미사일에 적용되는 단수명 항공엔진을 개발해 양산까지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장시간 반복 운용이 가능한 장수명 항공엔진 시제 개발은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KF-21 전투기와 연계해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은 장시간 비행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정찰하는 중고도 무인

기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두 엔진은 조립을 마친 뒤 지상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기체와 비행제어, 임무장비에 이어 항공기의 핵심 부품인 엔진까지 국내 기술로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인기 체계 전반의 국산화 수준을 높이고 정비와 개량, 수출 과정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엔진은 항공기의 성능과 작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품이다. 주요국들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을 통해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정비와 개량, 해당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수출 과정에서 원 제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한 KF-21, FA-50 등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수출에 제약 받을 수 있다. 국산 항공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면 수출 승인 부담을 줄이고 방산 수출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스텔스 무인기에 탑재되는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KF-21을 포함한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항공엔진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항공엔진 핵심기술 확보와 소재 자립화, 제조역량 내재화,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김중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팀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대한민국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흑자전환 성공

매출 7.5조, 영업이익 1133억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효과로 올해 2분기 흑자 전환했다.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적자가 이어졌지만 하반기에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 확대와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 대응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33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이익 규모는 줄었지만 지난 1분기 2078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데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2개 분기 연속 적자 흐름에서도 벗어났다.

매출은 7조560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4.8% 증가했다. 2분기 미국 IRA에 따른 AMPC 예상 금액은 2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제외하면 매출은 7조3193억 원, 영업손실은 1277억원이다. 특히 생산 세액 공제를 제외한 분기 매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10개 분기만이다.

북미 전기차 시장 둔화와 일부 합작법인(JV) 공장의 일시 가동 중단 영향이 이어졌지만 유럽형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확대와 46식리튬을 포함한 원통형 배터리 출하 증가,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물량 확대가 실적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실적은 ESS와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물량 확대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북미 ESS 신규 생산라인 가동으로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고전압 미드니켈 리튬인산철(LFP) 등 중저가 제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ESS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ESS 매출은 상반기보다 46% 증가할 것"이라며 "전기차 사업은 미국 공장의 낮은 가동률에도 유럽형 미드니켈, 리튬인산철(LFP) 물량 확대와 원통형 출하 호조로 매분기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LG AI연구원-코스콤, 금융 AI 서비스 개발 '맞손'

한국 주식시장 예측·분석 서비스

AI 기반 투자정보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LG AI연구원이 코스콤과 손잡고 한국 주식시장에 특화된 금융 AI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국내 금융 데이터와 AI 예측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고도화된 주가 예측·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 AI연구원과 코스콤(KOSCOM)은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AI 기

반 한국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창현 사장, 이창진 전무 등 코스콤 경영진과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 이화영 사업개발부부장 등 LG AI연구원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LG AI연구원의 AI 예측 기술을 적용한 금융 AI 에이전트 '엑스원 BI'에 코스콤의 금융데이

터를 결합해 한국 주식시장에 특화된 AI 예측·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주식시장에서는 예측의 정확도만큼이나 AI가 왜 그런 결과를 제시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LG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분야의 AI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항공, 임단협 마무리

최근 산업계에서 성과급 등을 둘러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항공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임금 총액 기준 2.5%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통합 특별 공로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반직·기술직·객실승무원 직원의 직급별 기본급은 지난 4월 1일부터 임금 총액 기준 2.5% 범위 내에서 인상된다.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1인당 200만 원의 특별 공로금을 오는 12월 10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승객 및 휴가 제도 개선, 직원 지원 체계 정비, 직원 항공권이



대한항공이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대한항공

용 기준 확대 등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개선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의 안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노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K-푸드 제조 노하우 쌓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점프'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이호성 산돌식품 대표

홍천서 밀키트 등 250여종 생산
떡볶이·생면 앞세워 가맹사업 확장
33떡볶이&꼬마김밥 300호점 돌파

면24 선보이며 생면 외식시장 도전
"프랜차이즈 아닌 프랜즈" 상생 고수
33분식으로 태국·미국 시장 공략



이호성 산돌식품 대표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에 출시할 예정인 제품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다양한 K-푸드 제조를 기반으로 유통을 더하고 프랜차이즈까지 진출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토종 중소기업이 있다.

어느 산업보다 경쟁이 치열한 식품 분야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남미 등 세계인의 식탁에 먹거리를 올리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현지 외식시장까지 넓히고 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산돌식품. 8000여평 규모의 공장에선 국물떡볶이, 닭갈비, 물냉면, 비빔냉면 등 다양한 밀키트를 비롯해 순살떡, 떡볶이떡 등 떡류, 생칼국수, 감자칼국수, 생소면 등 생면류, 쫄면, 감자수제비, 냉면 등 숙면류 그리고 각종 육수류, 소스류 등 생산 제품만 250여 가

지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제품을 A에서 Z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거쳐 만드는 식품 제조 중소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호성 대표는 CJ에 다니다 2004년 산돌식품을 창업했다. 홍천엔 전혀 연고가 없었지만 수맥이 흘러 터를 잡은 기업마다 망해나갔다는 그 자리에서 20년 넘게 보란듯이 버티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9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는 올해 4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돌식품으로 터전을 잡은 이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도전하기 위해 성백F&S를 추가로 창업했다. 2016년에 내놓은 '33떡

볶이&꼬마김밥' 프랜차이즈는 현재 전국에 매장만 300개가 넘는다. 최근엔 면 전문 프랜차이즈 '면24'도 새로 선보였다.

"좋은 식품을 정작하게 만들자는 게 우리의 목표다. 맛이 없으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가격이 싸다고 맛이 없어도 안된다. 맛은 절대적이다. 우리 회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프랜즈다."

이 대표는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점주들에게 업계 '최저 원가율'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에서 원가율은 보통 40~50% 수준이다. 우리는 30% 수준을 고

수하고 있다. 그래야 점주들이 남는게 있다. 10년째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점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지켜가 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면24는 맛을 위해 건면이 아닌 100% 생면을 쓴다. 서울 잠실에 직영점을 먼저 열어 가능성도 봤다. 잠실 직영점은 주말 등엔 하루 매출이 5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휴게소 6곳에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3분식'으로 통일했다. 33분식은 현재 태국, 일본, 라오스 등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등에도 점포가 있다.

이 대표는 "태국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CP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24년부터 방콕을 시작으로 매장을 늘려 가고 있다. 태국에만 100개 가량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1000개 매장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K-푸드 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이슈가 있어 버지니아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지화 준비도 마쳤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 우리의 타깃시장은 한인들이 아니다. 미국에 있는 주류시장을 공략하는 게 목표다. 전자레인지 이용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 비빔밥, 잡채밥, 김치볶음밥 등 인스턴트 조리 제품도 이미 개발했다. 식품을 담는

용기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징도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선 유일하게 미국 윌마트로부터 마스터서플라이어 자격까지 획득했다. 이 자격을 받는 곳은 국내에선 대형 식품회사를 포함해 4곳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홀푸드마켓, 트레이더조 그리고 멕시코의 대형 유통매장인 소리아나와도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월드컵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는 남미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다.

산돌식품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고령자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강원도백년기업인증 등 받을 수 있는 타이틀은 다 얻었다. 대통령 표창 3회 수상, 모범 중소기업 대통령상 등 수상이력도 수두룩하다.

이 대표는 외국인 직원 등을 위해 아예 숙박시설을 매입, 35호실 규모의 기숙사로 꾸렸다. 회사는 자녀수에 제한없이 대학생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직한 먹거리와 행복한 일터를 통해 사람과 기업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미국에 수출할 K-푸드 제품들을 품에 안듯이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었다.

/홍천(강원도) =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동국제강그룹, 창립 72주년 맞아 AI시대 체질 전환

장세욱 부회장 '기업 재창립' 강조 조직 문화·사업 방식 재점검 주문

동국제강그룹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체질 전환을 본격화한다. 기존 사업 방식과 조직 문화를 재점검하고, 공정 효율화와 실행력을 앞세워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동국제강그룹은 7일 창립 7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수하동 본사 페르타타워와 지방 사업장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는 모태 기업인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의 창업 정신을 계승해 매년 7월 7일을 창립 기념일로 삼고 있다.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핵심 키워드로 '기업 재창립'을 제시했다. 장 부회장은 AI 시대에는 단순한



동국홀딩스 창립 72주년 기념식에서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이 기념사를 전하는 모습. /동국홀딩스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과 사업을 재설계하는 관점에서 회사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시 창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와 똑같은 조직을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타성을 경계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스스로 흐름을 주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 72주년을 맞은 올해를 회사를 다시 돌아보는 한 해로 삼아 놓친 것은 없는지, 뒤진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장 부회장이 동국제강에 입사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육군 사관학교 41기 출신인 장 부회장은 1996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뒤 동국제강에 입사했다. 이날 동국홀딩스 임직원들은 장기근속자 표창 순서에서 장 부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계열사 대표들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줄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은 "어제의 계획을 오늘 수정하고 내일 다시 바꿔야 하는 시대"라며 "기본과 실행을 바탕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중기부 수출바우처 470억 펀다

고환율 피해기업 1200곳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사실상 마지막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약 1200곳을 지원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총 47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3차 모집을 8일부터 시작한다. 최근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환율로 경영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고환율 피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한도 지원을 허용해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흡연소핑 협력사 CCM 인증 멘토링

리앤데코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흡연소핑이 흡데코 분야 협력사인 리앤데코의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7일 흡연소핑에 따르면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3년마다 평가하는 국가공인 제도다. 이 가운데 'CCM 멘토링'은 이미 인증을 획득한 대기업(멘토)이 신규 인증에 나서는 중소기업(멘티)을 지원하는 일종의 재능 기부 활동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 인증을 2회 연속 획득한 흡연소핑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지난해부터 한국소비자원 동반성장협의체의 멘토 기업으로 참여해 왔다.

HMM, 스페인~서아프리카 신규 항로 첫 출항

알헤시라스 거점 MA2 서비스 개시

HMM이 7일 스페인과 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MA2(Mediterranean West Africa)'의 첫 항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MA2 서비스는 최원혁 사장 부임 이후 컨테이너 부문 전략으로 수립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의 첫 번째 노선으로, 유럽-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한 지선망이다. 원양 항로인 FIM(극동-인도-지중해) 노선의 주요 기항지이자 HMM

M 자영 터미널이 있는 스페인 알헤시라스를 중심으로 서아프리카 주요 항만을 연결한다.

MA2 서비스에는 총 5척의 피더선이 투입돼 왕복 35일이 소요된다. 기항지는 알헤시라스-탕헤르(모로코)-다카르(세네갈)-테마(가나)-레키(나이지리아)-아비장(코트디부아르) 순이다.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은 대형선이 원양항로 거점을 맡고, 중소형 피더선이 지선망을 연결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다양한 출발지와 목적지가 연결되

어 있어 화주들에게 유연한 운송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MA2 서비스는 혼잡도가 높은 서아프리카 항만 구간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초대형선의 운항 정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선망의 기항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최원혁 사장 부임 이후 HMM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컨테이너 부문 경쟁력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피더선 도입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HMM이 유럽-아프리카 지역 허브 항만으로 활용하는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만의 자영터미널(TTIA). /HMM

HMM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대형선과 피더선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윤 기자 ysw@

/김승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도체 흔들리니 증시도 '흔들'... 코스피 체질 개선 시급

외국인, 13거래일 연속 순매도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 위험”
“韓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 의견도

7일 코스피가 4.91% 하락한 7656.31에 마감했다. 코스피를 이끌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가 6.92%, SK하이닉스가 6.06% 하락해 코스피보다 낙폭이 컸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공장) 등을 세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부가 발표했지만 외국인이 ‘셀 반도체’에 나서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9000억원어치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다.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이 기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매도만 35조8000억원이 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경계력’

마이클 윌슨 미국 최고투자전략가가 이끄는 모건스탠리 팀은 6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기업)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분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주의 상



따는 시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인공지능(AI) 생태계 내에서 탄탄한 핵심 사업을 바탕으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 상승 종목군이었던 반도체주는 순환매 여파로 신고가 경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지난달 고점 대비 약 14% 급락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로는 여전히 123% 높은 수준이다. 반면 UBS의 하이퍼스케일러 바스켓은 지난해 9월 이후 2% 하락한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기대 후퇴와 국제 유가 하락도 반도체 투자 열기에서 벗어나는 순환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는 알파벳·아마존 등이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지만 이런 지출을 정당화할 만한 수익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설비투자 규율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윌슨 전략가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하이퍼스케일러는 이제 안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주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괴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월가의 큰 손들도 반도체에서 발을 빼

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고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들은 지난주까지 글로벌 반도체 주식의 하락세와 맞물려 4주 연속 기술 하드웨어 주식을 매도했다.

한국 반도체를 직접 거론한 곳도 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자체 연구 기관인 블랙록 투자연구소(BII)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신흥 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만은 TSMC가 증시를 주도하는 구조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 부아벵 BII 소장은 “대만과 한국 주식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큰, 소수의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며 “여러 시장이 동일한 공급망 밸류체인에 묶여 있을 때 지리적 다변화는 집중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증시와 반도체 체력 여전히 탄탄

자영업자 박모(31)씨는 7일 오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속보를 보고 하루종일 고민에 빠졌다.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곤두박질치자 주가를 보며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박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

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을 버텨야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박 씨는 “여기저기서 한국증시 펀더멘털이 좋고,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증시가 매력적이란 평가가 많다.

크리스티 탠(Christy Tan) 프랭클린템플턴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6일 “한국 증시 밸리는 인공지능(AI) 주도 반도체 실적 사이클과 정치적 안정,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끌었다”며 “그러나 최근의 주가 조정과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잔류는 한국 증시의 상승 잠재력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지수를 사는(buy the index)’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탠은 “과열된 초대형 반도체주를 뒤쫓기보다는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량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방산·조선·원전·로봇·전력설비 등 미국의 재산업화와 글로벌 공급망 투자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대안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이찬진 “모험자본 활성화, 선택 아닌 필수”

(금융원장)

금융감독원·네이버페이 공동 추진
‘Npay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
정보 비대칭 해소해 투자 선순환 구축

“우리 경제의 성장과 대도약을 위해서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스키아홀에서 열린 ‘Npay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시장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네이버페이가 공동 추진한 이번 플랫폼은 모험자본 시장



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민관 협력 인프라다.

모험자본 시장은 그동안 투자 대상 기업을 찾기 어렵고 기업 역시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제한되는 등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원은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플랫폼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네이버페이가 구축·운영을 맡고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해외에서도 피치북(PitchBo

ok)과 같은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은 이용자별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증권사는 AI 기반 기업 검색과 투자 정보 열람, 출자 공고 관리, 투자 이후 실시간 사후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VC와 신기사는 표준화된 펀딩 제안서 작성 도구와 맞춤형 투자기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은 IR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 프로필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기업을 상시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에서도 기업 정보가 노출돼 투자 유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투자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며 기관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원장은 추사에서 “모험자본 시장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유망 기업으로 더욱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금 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자생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개발을 주도한 네이버페이에 지속적인 관리와 기능 고도화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금 공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플랫폼 활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

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VC, 신기사가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발굴할 수 있는 투자심사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지금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도 플랫폼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달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플랫폼 출시 이후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중기부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헤지펀드, 엔화 약세 베팅 19년 만에 최대

약 13만8000계약으로 늘어

헤지펀드들의 엔화 약세 베팅 규모가 ‘엔캐리 트레이드’ 정점이었던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불어났다. 엔화가 이미 40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결과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옵션·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의 엔화 추가 하락 베팅 규모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13만8000계약으로 늘었다.

이런 약세 베팅 급증은 엔화가 달러당 162엔선을 뚫고 1986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와 시점에 대한 투기적 관측을 불러온 가운데 나왔다.

엔화는 올해 주요 통화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통화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미국 등과의 큰 금리 격차가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지난 6월 예상했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물가안정 회복을 다짐한 직후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엔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규모 지출 계획과 통화완화 선택 기조로도 압박받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주 연례 연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 당국은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엔화 방어에 사상 최대인 11조7300억 엔(약 727억달러)을 투입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외환정책을 지휘했던 아마사키 다쓰오 전 재무성 국제담당 부재무관은 이런 약세론을 반박하며 “엔화가 현재보다 최대 20% 강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130엔 안팎이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50%에 그쳐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근거다.

그는 200엔대 이상까지 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 내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현재 시세인 달러당 160엔대를 넘어 170엔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정책의 재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달러당 170엔대로 엔화 약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쓰이스미토모DS자산운용 소속 시장 분석 전문가는 이 신문에 “향후 일본 정부 예산 규모가 더 부풀게 되면 매도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엔화 시세를 달러당 165엔 전후로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SK하이닉스 ADR, 70억달러 투자 몰린다

글로벌 투자사, 투자 의향 밝히

전직 오픈AI 연구원이 설립한 미국 헤지펀드 등세 곳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에 최대 70억달러(약 10조7000억원)어치를 인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헤지펀드 시추 에이셔널 어웨어니스(Situational Awareness), 영국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Baillie Gifford), 미국 벤처캐피탈 코투(Coatu) 등 3곳이다. 이는 전체 공모 물량 43조 1400억원(280억달러)의 4분의 1에 달한다.

전직 오픈AI 연구원 리오폴드 애션브레너가 설립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에 대한 선구적 투자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아온 곳이다.

베일리 기포드는 혁신 기업을 발굴해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보유하는 성장주 투자에 강점을 보이는 곳이며 코투는 테크 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유명한 벤처캐피탈이다.

SK하이닉스는 발행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신규 1779만주를 ADS 형태로 발행해 오는 10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트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알버트 용 매니징파트너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큰 점을 언급하면서 “SK하이닉스 주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스탠다드차타드의 순딥 간토리 주식 부문 최고투자책임자는 미국 시장에 따른 접근성 개선은 긍정적이라면 “메모리 사이클의 타이밍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신하은 기자

공정위, 전분당 4사 '7년 담합' 적발... 7476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시장 점유율 90% 4개사
13차례 걸쳐 가격조작 행위 적발
전쟁 틈타 원가 상승분 소비자 전가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을 독점해 온 4대 제조사(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가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례적으로 '가격을 스스로 다시 내리라'는 강제 명령도 내렸다.

◆우크라 전쟁 틈타 가격 폭등...원가 부담은 소비자에게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 및 관련 임직원들은 이미 검찰 고발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분당은 제과·제빵, 음료뿐만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의 필수 원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료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 혜택을 줬으나, 시장 점유율 90%인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을 조작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틈타 원

가 상승분을 신속히 전가하며 가격을 최대 73%나 끌어올렸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요구를 몽개고 시기를 늦췄으며, 힘없는 소규모 업체나 대리점에는 비싼 가격을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했다.

이들의 담합 방식은 치밀했다.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업체별로 시차를 두고 순차 통보해 거래처를 압박했다.

합의 후에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했다. 인상 통지 공문 발송일에는 경쟁사 직원이 서로의 사무실을 방문해 공문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발송 여부를 감시했다. 특정 거래처와 협상할 때는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경쟁사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바람을 잡았다.

◆공정위 역사상 4번째 '가격 재결정 명령' 초강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더해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라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역사상 네 번째로 부과된 초강수 조치다.

과점 체제가 굳어진 시장 특성상 가격을 강제로 내리게 하지 않으면 담합 효과가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

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부로 체감하는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4개사는 대형 실수요처 대상 '입찰 담합'과 사료용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로 또 한 번 공정위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이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 등 7개 대형 실수요처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찜짜미한 의혹(관련 매출액 9400억원)을 포착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을 제외한 3개사는 사료 원료용 부산물 가격을 밀약한 혐의(관련 매출액 1조 5500억원)도 받는다. 이번 추가 담합 역시 중대 위반 행위로 분류돼 혐의 입증 시 최대 500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수원, 미래원전 기술·안전경영 선배

내일까지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모형 소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래 원전 기술과 선진 안전경영 체계를 선보인다. 한수원은 6일~9일까지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전문 전시회 '2026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과 사람 중심의 안전'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마련한 한수원은 차세대 주력 기술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모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강화된 안전설계 기술과 다목적 활용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고위험 작업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되는 원격 조종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장 작업자의 안



한국수력원자력이 6일~9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가해 원전 안전기술을 선보인다. /한수원

전을 극대화하는 최신 기술을 생생한 영상과 시연으로 전달해 체감도를 높였다. 아울러 한수원 고유의 안전 경영 체계와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장 운영 현황 등 조직 전반에 뿌리내린 '안전 최우선' 가치도 함께 공유한다.

김상우 한수원 안전경영담당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수원이 추구하는 '신기술 기반의 안전한 작업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실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홍수 기자

산·학·연과 지속가능 '순환경제' 방안 모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실천방안 및 지향점 도출을 목적으로 각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다임 씨타워에서 '2026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이 공유됐다. 공사 관계자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행사는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상반기 성과발표'와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폐자원 에너지화 전

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6개 참여대학의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폐자원 에너지화를 비롯해,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침출수 처리공정 고도화,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등 다양한 연구성과가 소개됐다.

발표 후에는 평가위원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와 기술적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평가 결과, 창원대학교 석사과정 박재연 연구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수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자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전처리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홍영기 속초시청 주무관은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자원순환 정책 추진 경험과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또 오세천 공주대 교수는 수도권 광역 거버넌스 기반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재정지원, 주민수용성 확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같은 날, 포럼에 이어 '2026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도 열렸다. 폐기물관리·처리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플라스틱 재활용 등 분야의 연구성과 및 기술동향 등이 공유됐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포럼은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농지 임대차거래' 현황 점검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농지 임대차거래'에 대한 현황 점검에 나섰다. 그는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또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 실시사를 찾아,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개편할 것"이라며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 주기 위한 농지 전수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자계약 체결 현장 및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 등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지거

래시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청년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 간 연결 필요 등의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귀농인이나 신규입업 청년농의 경우, 지역 내 농지 매물이 나와도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임차인)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대면·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보훈가족 대상 '문화복지' 확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맞손'

한국마사회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의 조성·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문화센터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좌 프로그램 기획과 시스템 및 감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어르신들이 한전하

고 쾌적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문화센터'는 마사회 사업소가 위치한 광주, 대구, 수원, 김해(부산) 등 4개 지역의 보훈요양원 거주 국가유공자 및 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래교실·꽃꽂이 등 연령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열린 협약식에는 마사회의 이병우 부회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영의 사업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경북 대전환위 활동 마무리... 미래 성장전략 제안서 전달

투포트 경제-P·AX 경북 등 제시
복지·민생 정책 핵심 과제로 꼽아
이철우 도지사 “제안 적극 반영”



김성조 경상북도 대전환위원회장(왼쪽)이 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대전환위원회 도민보고대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민선9기 경상북도 대전환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대전환위원회가 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민보고대회를 열고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선9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3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위원회는 도지사 공약 이행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산업, 공간, 공동체, 민생 등 4대 대전환 분야로 종합·조정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성조 위원장, 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대전환 분야에서는 ‘P·AX 경상북도’를 목표로 제조·에너지·바이오·항공방위산업 대전환과 경북투자청 설립, 정책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식품·문화·관광을 연계한 K-푸드 산업 육성 방안

도 함께 제시했다.

공간 대전환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포항 열일만항을 축으로 한 ‘투포트(Two-Port) 경제 전략’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을 포함한 K-관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공동체 대전환 분야에서는 ‘경북형 온

(溫) 복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북 첫 곁을 연금, 어르신 건강방상, K보듬 6000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의 신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경북형 일자리 기본사회와 AI·디지털 교육 확대, 경북형 소상공인 뉴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4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으로 제시하며 특별법의 우선 통과와 후속 보완, 주민의 견수럼 필요성을 함께 제안했다.

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담은 ‘민선9기 경상북도 대전환 정책제안서’를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성조 위원장은 “위원회와 경상북도, 경북연구원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제안이 경북도정에 반영돼 경북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서비스산업인 만큼 시대 변화를 먼저 읽고 기업과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관광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암군 월출산서 만나는 여름 인문여행

영암군이 도갑사 템플스테이에서 월출산과 함께하는 1박 2일 인문여행을 운영한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도갑사 템플스테이에서 진행되는 체류형 인문프로그램 ‘영암 사계 인문학교 여름’이다.

영암 사계 인문학교는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해 계절별로 운영하는 체류형 인문교육 프로그램이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숙성한다’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영암의 인문자원을 체험하며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경북교육청

2030 경북교육 중기계획 수립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2027~2030년 중기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추진단 기획위원회는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추진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공약 이행 과제와 현장 의견,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전문가 면담, 학교 방문 등을 토대로 민선 6기 비전인 ‘저마다의 꿈을 살리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구체화하고 미래교육 체제를 설계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이다. 교육 효과가 낮거나 학교 현장 부담이 큰 사업은 폐지·통합·축소하고 학생 성장과 직결되는 사업은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271억 ‘돌파’

2032년 500억 조성 목표
군비로 매년 30억 출연

전남 해남군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기금이 6월 말 기준 271억원을 돌파하며, 2032년 500억원 조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사업기금은 지난 1997년 시작해 2005년 60억원, 2012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예금이자를 활용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 해남군교육재단 출범을 계기로 장학금 및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재단으로 이관하고, 장학사업기금은 지출 없이 적립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장학사업기금은 미래 교육 자원 확보를 위한 순수 적립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군에서도 매년 30억원의 군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금고 협력사업비와 이자 수입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탁이 더해지면서 기금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학사업기금은 2021년 11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18억원, 2023년 157억원, 2024년 194억원, 2025년 2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은 단순한 기금 확대가 아니라 해남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라며 “500억원 조성 목표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군민과 출향 향우, 기업 및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

경남도, 함안낙화놀이로 동남아 공략

특화 관광상품 개발 나서

경남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함안 낙화놀이’를 활용한 동남아 관광역 유치전과 더불어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관광공사는 올해 대폭 확대된 동남아발 부산 직항노선을 활용한 신규 외국인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4개국 현지 유력 여행업계 관계자 12명을 초청해 경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3일과 4일 열린 함안낙화놀이 페스티벌에는 홍콩·대만 단체관광객 500여명을 유치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함안낙화놀이를 연계한 관광상품



지난 4일 경남 함안낙화놀이 페스티벌 감상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으로 일본 관광객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핵심 콘텐츠인 함안낙화놀이 페스티벌을 비롯해 진주, 김해, 통영, 거제, 함안, 남해, 산청을 방문해 이색적인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특색 음식, 액티비티를 즐기며 경남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경북형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성과 적용 실증기반 확대

포항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실증 역량을 강화하고, 경상북도·구미시와 연계한 경북형 휴머노이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휴머노이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제조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 등 제조산업이 집적돼 있어 고위험·고정밀 공정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성능 검증과 현장 실증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포스텍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뉴로메가 등 연구기관과 기업이 위치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있다.

시는 AI 기반 자율예지보전, 고위험 작업용 모바일 자율로봇, 폐배터리 인간

-로봇 협업해체기술, 수중·안전로봇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실증·수요 확산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조 AI 전환(AX) 거점 역할도 추진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으로 구미의 제조·부품 경쟁력과 포항의 연구개발·실증 역량을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제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체계적 제조현장 등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실증 거점으로 성장하고, 경상북도·구미시와 협력해 경북형 휴머노이드 산업생태계 구축과 제조 AI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제10대 부산시의회 출범... 의장에 강무길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부산시의회가 지난 6일 오전 10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강무길 의원(3선·해운대구4)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의장은 재석 48명 중 44명의 찬성으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제1부 의장에는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재선·서구1)이 선출됐다.

제10대 시의회는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 37석, 더불어민주당 11석으로 구성됐다.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이 맡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다.

제9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47석 중 45석을 확보해 사실상 단일 정당 체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 의석이크게 늘어난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경쟁 양상이 형성됐다.

강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같은 3선인 이종진 의원과의 경선을 거쳐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민주당도 당초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후보를 냈으나 협치 명분으로 후보를 사퇴시켰고,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의 의장·제1부 의장·상임위원장 선거는 모두 단독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강 의장은 선출 직후 “오직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시의원 전원과 전재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 뒤 오후 3시 30분 본회의를 속개해 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위원 선임까지 마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광안대로 출퇴근시간 무료 통행

부산시가 8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로 통행 차량에 대한 요금 무료화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무료 통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부산시는 그동안 이 시간대 차량 통행료를 50% 할인 해주던 것을 8일부터는 전액 무료로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시간대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며, 사전 등록 등 별도의 절차는 없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및 특수 차량은 1500원의 통행료가 적용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병역명문가 주소제한 폐지 추진

경주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만 혜택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소지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를 예우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병역명문가도 경주시를 방문하면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조례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얼어붙은 소주 시장... '로컬 브랜드·특화 콘셉트' 판도 변화

주류 소비량 감소 흐름 고착화
Z세대 새 주역... 재미·경험 중시
대형사 중심 획일화 구도 붕괴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와 희식 문화 변화로 국내 소주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반의 '로컬 소주'와 차별화된 '특화 소주'가 정체된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대형 브랜드 중심의 획일화된 구도에서 벗어나 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을 공략한 결과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구매데이터(가정용 개인 실구매 기준)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소주 시장의 최근 1년(MAT) 구매 추정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조2911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 1조3711억 원, 2025년 1조308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주류 소비량 자체가 줄어드는 대체적 흐름이 고착화되면서 가정용 소주 시장 역시 타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시장 규모는 축소됐지만 대형 브랜드들이 구축한 진입장벽은 여전히 공고



선양오크

하다. 익숙한 브랜드를 지속해서 찾는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상위권 독점 구조는 유지됐다.

2026년 5월 MAT 기준 소주 브랜드별 구매액을 살펴보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4963억 원의 구매 추정액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수성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전통강자 '처음처럼'이 2109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뉴트로 열풍을 이끌었던 '진로'는 1593억 원으로 3위에 올랐고, 제로 슈거 트렌드를 주도하며 급성장한 '새로'가 1403억 원의 구매액으로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새로 살구·다래·오미자

이들 전국구 '빅4' 브랜드가 소주 시장의 중추 역할을 하며 뼈대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으나 전체 시장의 성장 둔화와 맞물려 이들의 성장세 역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성장 정체를 맞은 대형 브랜드와 달리 중위권 브랜드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소비자의 과편화된 취향을 저격한 '로컬 브랜드'와 '특화 콘셉트' 제품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특화 소주의 돌풍이다. 구매액 20억 원 이상 브랜드 중 차별화된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세운 '오크젠'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0.5%의 세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선양오크' 역



참이슬 후레쉬 이슬라이브페스티벌 한정판

시 97.2% 급증했다.

지역 기반 브랜드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대선', '시원한청풍', '깨끗한아침잠' 등 탄탄한 지역 충성도를 가진 로컬 소주들이 뚜렷한 구매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구 브랜드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향후 소주 시장의 경쟁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취향이 극도로 세분화되면서 무조건적인 전국구 브랜드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며 "기존 메이저 브랜드의 안정적인 방어선 구축과, 틈새를 노리는 로컬 콘셉트 브랜드의 정교한 타겟팅 싸움이 향후 소주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 하이트진로는 최근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의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가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막 성인이 된 Z세대를 겨냥해 '술무살 자격증' 발급 프로모션을 전개하는가 하면, 국내 가정용 시장의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에서 '진로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의 메가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새로 살구'의 흥행에 이어 참다래 과즙을 더한 '새로 다래',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 오미자'까지 연이어 출시하며 저도수·과즙 소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새로구미(구미호)' 캐릭터를 활용한 몰입형 팝업스토어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젊은 층에게 다가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음주 관행을 거부하고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Z세대가 주류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면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편의점, 보양식 전쟁... 장어도시락·삼계탕 등 신제품 봇물

GS25 프리미엄 간편식 등 선배
이마트24 장어 도시락·김밥 출시
CU 삼계탕 등 기존 보양식 재해석

편의점 업계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초복을 앞두고 고물가 시대에 맞춘 보양 간편식 시리즈를 일제히 선보이며 여름철 보양 수요 공략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이 초복(7월15일)과 중복(7월25일)을 겨냥해 앞다투어 보양식을 출시하고 있다.

CU에 따르면 여름철(6~8월) 보양식 매출 신장률은 2023년 28.5%, 2024년 25.1%, 2025년 19.8%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식 부담이 커진 데다 근거리 소비 패턴 정착,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까운 편의점에서 보양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S25가 장어와 오리 등 대표 보양 식재를 활용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간편식 상품을 선보이며 여름철 보양식 수요 공략에 나섰다. /GS리테일

GS25는 민물장어와 훈제오리를 메인 재료로 한 도시락과 프리미엄 간편식을 선보인다. 복날 시즌에 맞춘 도시락은 메인 식재료에 복분자 소스 함박스테이크와 다양한 반찬을 더해 알차게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계란말이 위에 장어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린 간편식과 오리, 전



CU는 초복을 앞두고 보양 간편식 시리즈를 순차 출시한다. /CU

복 등을 활용한 삼각김밥도 출시한다. 치킨25 주문조리 상품과 냉장 삼계탕 등에 대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이마트24는 일본 가정식 요리인 지라시스에서 착안한 장어도시락과 장어김밥을 출시한다. 장어 지라시스 도시락

은 초밥밥 위에 장어, 오징어, 새우, 날치알 등을 푸짐하게 올렸으며, 민물장어김밥은 장어와 계란말이, 오이를 한입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수삼 한 뿌리를 통째로 넣은 삼계탕 간편식도 함께 선보이며, 행사카드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복날 연관 상품 대상 이벤트를 펼친다.

CU는 삼계탕, 장어, 훈제오리 등을 색다르게 재해석한 이색 보양식 시리즈를 준비했다. 한방 풍미의 닭가슴살 패티를 넣은 삼계 버거와 삼계 삼각김밥, 장어와 닭가슴살을 함께 담은 삼계밥 등을 선보인다. 특히 장어 정식은 사전 대량 매입을 통해 단가를 낮췄으며, 단호박 훈제오리와 훈제오리 샌드위치 등 퓨전 메뉴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여름 신상품 국수류와 함께 여름을 통한 예약 구매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마트
대체커피 '치코' 2종 판매

롯데마트가 1일 차커리를 활용한 대체커피 '치코 마일드 로스트(2g*20입)'와 '치코 마일드 라떼(18g*20입)' 2종(사진)을 단독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치코(CHYCO)'란 차커리(Chicory)와 커피(Coffee)를 결합해 만든 브랜드명으로,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제타에서도 동일하게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차커리 뿌리를 로스팅해 커피 특유의 씹스름한 풍미와 깊은 바디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무카페인 제품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더본코리아, '뽕다방' 전면 BI 개편

영문명 중심 변경... 해외사업 박차



뽕다방 신규 BI /더본코리아

드 정체성을 함께 담았다는 설명이다.

신규 BI는 본사 지원을 통해 전국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맹점의 교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통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도 속도를 낸다. 뽕다방은 오는 8월 일본 도쿄에 첫 해외 매장을 열고 연내 2호점까지 출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대만, 미국 등에서도 시장성과 사업 모델을 검토하며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농심, '인생이 맛있어지는 결혼식' 사연 공모

500만원 상당 혜택... 내달 3일까지

농심은 서울시와 체결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인생이 맛있어지는 결혼식' 러브스토리 사연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내달 3일까지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 예비 지원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연은 서울시와 농심의 1차 심사, 방송인 이금희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 9월 이후 결혼하는 예비부부 3쌍과 내년 예식 예정인 10쌍이 지원 대상이다. /신원선 기자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식 지원금과 포토부스, 웰컴 푸드, 농심 제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등 약 5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결혼식 당일에는 하객이 방문록에 남긴 축하 메시지 1건당 라면 1봉을 적립해 서울시 복지시설인 '서울 마음편의점'에 사랑·신부 이름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시가 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 루프탑 등 서울 시내 60여 개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해 합리적인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심은 이번 협력을 통해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대상 청정원 카레어왕 신제품 2종 출시

대상은 청정원 카레 전문 브랜드 카레어왕의 신제품 '리치 크림카레'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제품은 유크림과 토마토를 조합한 '리치포테이토&크림'과 구운감자의 고소함을 담은 '리치포테이토&크림'으로 구성됐다. 두 제품 모두 프랑수아식 육수인 '스노우카레'와 크림 파우더를 더한 3팩 구성으로 깊은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기본 카레는 물론 크림 카레 우동, 파스타, 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물 대신 우유를 넣으면 보다 진한 크림 카레를 만들 수 있고, 물과 우유를 3대2 비율로 조리하면 소스 형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K-팝이 키우고 기술력이 완성한 K-헤어... 해외서 고공행진

북미 소비자 맞춤 기능성 제품 인기
큐텐재팬 전년비 판매량 115% ↑
카자흐스탄 등 신흥시장 성장세

K뷰티가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에 이어 헤어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 K팝 아이돌처럼 유행이 나는 머릿결과 세련된 스타일을 선망하는 글로벌 팬덤의 K컬처 수요, 국내 브랜드만의 기술력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K헤어'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K뷰티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는 맞춤형 고 기능성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LG생활건강의 고급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는 지난달 미국 유명 이커머스 아마존에서 열린 대형 세일 행사 프라임 데이에서 성과를 냈다. 이번 행사 내 닥터그루트 매출은 전년 대비 45.9% 증가했다. 특히 탈모 부문에서 브랜드 대표 제품인 '헤어 시크닝 샴푸'와 '미라클 인 사워 모이스처라이징 트리트먼트'가 매출 2위를 차지했다.

LG생활건강은 글로벌 소비자 고민에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발맞춰 '문제 해결형 제품'을 지속 내놓을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을 세분화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해 상품 구성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뷰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일본의 헤어 시장에서도 국내 제품들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아베이재팬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간 일본 온라인몰 큐

텐재팬에서 K헤어 관련 제품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브러시, 고데기 등 스타일링 제품군은 267%, 컬러 제품군은 219% 급증했다. K팝 아이돌의 스타일링을 직접 연출하려는 일본 Z세대의 수요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또 잦은 열 처리와 탈색으로 손상된 모발을 개선해 주는 기능을 갖춘 샴푸, 트리트먼트 등도 경쟁력을 높인다.

아베이재팬 측은 "한국 제품 특유의 한

방 소재, 효소 성분 등은 독보적 강점"이라며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샴푸를 비롯한 기초 제품부터 스타일링, 컬러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과 다채로운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신흥 K뷰티 시장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역시 K헤어 핵심 기지다.

애경산업의 경우, K팝 행사를 통해 현지 팬덤을 고급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 인지도로 연결시켰다.

애경산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CIS 지역에서 연평균 18.4%의 케라시스 매출 성장률을 올렸다. 이어 올해 5월 누적 한 케라시스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로 커졌다.

애경산업은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며 케라시스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전개되는 K헤어 열풍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고 있다.

실제로 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 '그래

비티'의 경우 과학 혁신 기반 스타트업 폴리페놀팩토리가 개발한 브랜드다. 폴리페놀팩토리는 세계 최초로 샴푸 시장에서 해양 미세조류 유래 비건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처방하는 데 성공해 최근 그라비티 신제품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30대~40대부터 일찍이 두피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내 롯데홈쇼핑 기간 프로그램 '최유리쇼'에서 첫 방송만으로 약 2만6000명의 판매고를 올렸다. 총 주문액은 6억8000만원 수준이며 분당 최고 주문액은 1686만원까지 치솟았다. 초도 물량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전후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라비티 측은 "바이오 기술력이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두피 건강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의 신뢰도를 얻은 결과"라며 "특히 최근 비만치료제 복용 등으로 탈모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제품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베그젤마, 美 대형 PBM 2곳 처방집 등재

셀트리온, 안정적인 처방 기반 마련
출시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베그젤마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셀트리온은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가 미국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두 곳의 처방집에 등재됐다고 7일 밝혔다.

미국 3대 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의 공보보험 처방집과 또 다른 대형 PBM인 '옵팀'의 공보보험 처방집에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으로 등록됐다.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공보보험과 옵팀은 이달 1일부터 이미 환급 적용이 시작됐고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사보보험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환급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는 PBM 처방집



베그젤마 /셀트리온

에 의약품이 등재되지 않으면 환자는 비용 환급 없이 제품 가격 그대로 구매해야 하고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은 어려워진다.

이번 PBM 등재를 통해 베그젤마는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35% 이상의 환급 커버리지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처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향후 점유율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서 베그젤마는 시장 후발주

자로 출발해 미국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제품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오픈마켓은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의료 기관과 제약사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갖췄다. 제품 경쟁력, 제약사 영업력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 결과 베그젤마는 최근 출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돌파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국에서 베그젤마 시장점유율은 약 10.6%로 집계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베그젤마 처방세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대형 PBM들과도 베그젤마 등재 협상을 추진해 성과를 늘려가는 동시에 이를 포함한 셀트리온 제품군 전반에서 판매를 확대해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주식병합 가결... 기업가치 높인다

중장기 성장 전략 박차

조아제약이 올해 하반기 기업가치 제고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조아제약은 지난 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주식병합 목적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와 주가 안정화다. 조아제약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사업 육성, 브랜드 가치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성과를 낸다. 과테말라에 이어 콩고 민주공화국 등으로 수출국을 늘렸다. 철분제 '뉴헴시럽'과 '뉴헴포르테시럽'의 경우 아프리카, 동남아 등 철결핍성 빈혈 유행률이 높은 신흥 시장을 공략한다.

조아제약은 '뉴헴'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해당 제품군은 2023년 4개 국가에서 7억여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2026년 6개 국가 22억원, 2027년 7개 국가 25억원 등이 목표다.

이와 함께 조아제약은 주력 제품의 시장 입지를 보다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출시 20주년을 맞은 어린이 영양식품 브랜드 '잘크톤'은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1045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아제약은 유통채널을 다각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등도 전방위적으로 펼치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가치 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신약, 여성 소비자와 두피 고민 나눠

탈모 전문의와 뷰티 클래스 진행

JW신약이 두피와 모발에 관심이 있는 여성 소비자들과 적극 교류하며 두피 고민 해소를 위한 관리법을 확산하고 있다.

JW신약은 '듀크레이 네오타이드 엑스퍼트' 뷰티 클래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뷰티 인플루언서 20여 명이 참석해 20~30대 여성의 모발 고민을 나누고 올바른 두피 및 모발 관리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탈모 치료 분야 전문가가 연자로 함께해 전문 정보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JW신약은 '듀크레이 네오타이드 엑스퍼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품 주요 성분과 특징을 설명하며 직접 사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듀크레이 네오타이드 엑스퍼트는 JW



'듀크레이 네오타이드 엑스퍼트' 뷰티 클래스가 열리고 있다. /JW신약

신약이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의 모발 관리 화장품이다. 가늘고 힘없는 모발 등을 개선하는 기능을 갖췄다.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 소비자 16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관찰 연구에서 해당 제품 사용 후 모발의 볼륨감, 윤기, 밀도감 등에 대한 개선 만족도가 확인됐다. /이청하 기자

지그재그 교환도 '직진 배송'

키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직진교환'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직진배송은 별도의 교환 기능이 없어 상품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환불 후 상품을 재주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론칭으로 직진배송 상품 수령 후 7일 안에 교환 신청을 하면 반품, 재구매의 번거로움 없이 보다 빠른 상품 교환이 가능해졌다. 기존 구매 시 적용했던 쿠폰, 마일리지 등의 혜택도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

지그재그는 올해 1월 교환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이래 교환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고도화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1월 평균 4.5일에서, 지난 6월 기준 평균 3.5일로 약 22% 이상 더 빠른 상품 교환이 가능해졌다. /김서현 기자 seoh@

오가노이드 국제 컨퍼런스, 9월 판교서 개최

바이오의약품·KHID 함께 진행

차세대 생체 모델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올해 9월 처음으로 한국에 모인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9월 17~18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국제 컨퍼런스 'ODC26 Mirrors: The Reflective Turn(성찰적 전환)'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ODC는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행사다.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함께 진행한다. 또 Or



지난해 열린 'ODC25' 전경 /오가노이드사이언스

ganoids Are Us, 한국줄기세포학회(KS SCR),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등이 대거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오가노이드를 비롯한 차세대 생체 모델 기술을 조명한다. 생명을 관찰하는 도구의 진화는 물론, 인체 작동 방식을 스스로 증명하는 새로운 변화를 살펴본다. 나아가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함께 짚어본다. /이청하 기자

100+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프로그램

|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
| 참가등록 | 13:00~14:00 |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
| 개막식 | 14:00~14:15 | <축사>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 기조강연 | 14:15~14:50 |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
| 강연 | 14:50~15:20 |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
| | 15:20~15:50 |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
| | 15:50~16:20 |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
| | 16:20~16:50 |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 경제



세정그룹, 600가구에 주거복지 나눔

세정그룹이 주거·복지·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정그룹은 올해 상반기 600가구를 대상으로 4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의 대표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올해로 누적 330가구를 달성했다. 8년째 지속해 온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으로 올해 20여 가구의 주거 개선을 지원했다. /세정그룹



기보, K-푸드 세계화 금융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식품산업협회, NH농협은행과 K-푸드 글로벌 진출 지원에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식품산업협회, 농협은행과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식품산업협회에서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위한 푸드테크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식품기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



주금공, 제2기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기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주금공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에는 주택금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작 등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전국 대학생 24명이 참여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지난 6일 개최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동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새마을금고, 복지시설 침수 예방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수해 취약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차수 및 방수 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 위기로 해마다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전국 40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차수관 설치와 비가림막·옥상 방수 시공 등 침수 예방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인사 ◆상주◇5급 전보△총무과장 차형원 △신흥동장 성백률

◆창원시의회 ◇4급 승진△의회사무국 건설해양농림전문위원실 김영현◇5급 승진△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정은정

부음 ▲이동춘(향년 88세)씨 별세, 이관상(금호건설 경영관리본부 전무)·혜경씨 부친상, 최인영씨 시부상, 김희준·희영·희주·이예준씨 조부상 = 7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860-3500

KT, AI·클라우드 실무로 청년 AX 인재 키운다

에이블스쿨 10기 교육생 모집
AI 개발자·DX 컨설턴트 트랙 운영
9월 말 입교해 840시간 교육 진행

KT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에이블스쿨은 KT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AI·클라우드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2021년 첫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료생 3500명을 배출하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왔다.

교육 과정은 9월 말 입교를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을 6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이다. 모집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이번 10기는 AI 개발자 트랙과 DX(디지털 전환) 컨설턴트 트랙으로 운



KT 에이블스쿨 9기 교육생 단체사진.

/KT

영한다. AI 개발자 트랙은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DX 컨설턴트 트랙은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육성이 목표다.

총 84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구현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중심의 운영이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과제 발굴부터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다. 특히

현직의 KT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코칭과 멘토링에 참여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업무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료를 마치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채용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에이블스쿨 수료생들은 500여 개 기업에 진출해 AI 개발, 데이터 분석부터 영업,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KT 인재실장 이선주 전무는 "AX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 역량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KT 에이블스쿨이 축적해 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X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더네이처홀딩스, 브롬톤 자전거 사업 진출

국내 독점 총판 계약 체결
어패럴 넘어 모빌리티 확장

더네이처홀딩스가 브롬톤(BROMPTON)의 국내 자전거 사업을 맡는다. 사업 영역을 자전거까지 넓히며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브롬톤 런던(BROMPTON LONDON)은 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브롬톤 런던 2026 프레스 데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네이처홀딩스와 브롬톤이 자전거 한국 총판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롬톤 런던은 이번 총판 계약을 계기로 어패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자전거 분야까지 확대한다. 플래그십 스토어와 딜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판매망을 넓히고 유통 및 A/S 체계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유승운 더네이처홀딩스 상무는 "딜러 네트워크와 직영리테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Co-Part



'브롬톤 런던 2026 프레스 데이' 기자간담회 현장의 모습. 왼쪽 두번째부터 윌 버틀러 아담스 브롬톤 CEO, 박영준 더네이처홀딩스 대표, 유승운 상무. /김수정 수습기자

nership)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연간 3000~4000대 수준인 브롬톤 자전거 국내 판매량을 600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윌 버틀러 아담스 브롬톤 영국 본사 CEO는 "브롬톤은 단순히 자전거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오랫동안 같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전거를 수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브랜드 철학"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코웨이, 비렉스 AI 광고·숏폼 공모전

상금 2000만원, 이달 30일까지

코웨이가 총상금 2000만원 규모의 비렉스(BEREX) 'AI 영상 광고·숏폼 공모전'을 연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비렉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웨이가 AI 미디어테크 기업 스튜디오프리월루전과 AI 콘텐츠 플랫폼 AI-Kive가 공동 주관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비렉스 대표 제품인 'R7 스트레칭 모션베드'와 '안미의자 썬블체어' 두 가지다.

지원 분야는 가로형 AI 영상 광고와

세로형 AI 숏폼 두 가지다. 영상 광고는 30초 분량, 숏폼은 10초 이상 1분 미만으로 제작해야 하며 모든 영상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AI 제작 고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출품은 제품 주제·형식별로 각 1편씩 최대 4편까지 가능하다.

수상작은 코웨이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브랜드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스튜디오프리월루전 인턴십 기회도 제공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렉스가 선사하는 휴식의 가치가 AI 기술을 만나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되길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세화미술관, 바젤리츠 회고전 예매 시작

20년 만 개인전, 국내 미공개작 중심

태광그룹 세화예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세화미술관이 독일 신표현주의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게오르크 바젤리츠 회고전의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화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매는 이달 13일부터 가능하다.

세화예술문화재단에 따르면 바젤리츠 개인전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약 20년 만의 일이다. 작가가 4월 별세한

뒤 열리는 최초의 회고전이기도 하다.

바젤리츠는 1938년 독일 도이치바젤리츠에서 태어난 전후 독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기존 회화에 전통에 저항하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고, 인물과 사물을 거꾸로 배치하는 뒤집힌 회화 화풍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세화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바젤리츠의 1960년대 초기 작업을 시작으로 작고 전 올해 작업한 최근의 작업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내 미공개작을 중심으로 회고전을 구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SOOP, 2026 VNL 온라인 독점 생중계

여자부·남자부 주요 경기 순차 중계

SOOP(송)은 국제배구연맹(FIVB)이 주관하는 '2026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주요 7경기를 온라인 독점 생중계하며 글로벌 배구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중계는 약 70경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SOOP은 여자부와 남자부 예선 3주차를 비롯해 결선 토너먼트 주요 경기를 순차적으로 생중계하며, 일부 경기에는 한국어 해설을 제공해 국내 배구 팬

들의 시청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자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선 3주차와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결선 토너먼트 주요 경기를 중계한다. 이어 남자부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예선 3주차 경기에 이어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결선 토너먼트 주요 경기를 선보인다.

SOOP은 국제배구연맹 주요 국제대회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구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ra@

LG U+, 공공 데이터로 음성 스팸 차단

KISA와 업무협약 체결

LG유플러스가 공공 데이터와 협력해 음성 스팸을 방지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 최윤호 그룹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기반본부 신대규 본부장 등 주

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팸발신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KISA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는 게 골자다. 최근 음성 스팸은 보이스 피싱 범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에 사후 대응 중심의 스팸 차단 방식에서 조기 식별 및 선제적 차단 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철판 위에서 만난 두 음식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라멘, 돈카츠, 이자카야, 스시, 사부사부 등 이제는 일본 음식 이름이 그리 낯설지도 않고 동네 골목에서도 그러한 상호의 가게 하나, 둘 정도 발견하기가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다. 여행지나 지방의 행사장에 등장하는 푸드트럭에서는 이미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는 단골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코노미야키(お好み焼き)는 우리의 빈대떡과 같은 모양 때문에 처음부터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음식 중 하나이다. 오코노미야키는 일본의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유래를 찾으면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진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이다. 전후 식량난 속에서 충분한 쌀을 구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밀가루를 배급했고,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에 양배추와 남은 채소 등을 철판에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오코노미야키가 된 것이다.

오코노미야키라는 이름을 분해해 보면 오코노미(お好み)+야키(焼き)로 분리 할 수 있

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좋아하는 것'+ '구이'가 되고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워 먹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을 구워 먹었으나,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이다. 어디선가 오코노미야키를 주문할 때 내용물로 해산물, 육고기, 야채 등을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처음부터 오코노미야키는 정해진 조리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 지역에서는 반죽과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사이에 면을 넣기도 했고 오사카 지역에서는 재료를 모두 섞어 한꺼번에 굽는 방식이 정착했다.

그런데 도쿄에는 오코노미야키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철판 음식이 있다. 바로 몬자야키이다. 오코노미야키는 이제 한국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몬자야키는 다르다. 몬자야키는 일본에서도 도쿄, 쓰키시마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도쿄를 벗어나면 일본에서도 몬자야키 전문 식당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낯선 음식이기도 하다.

처음 일본인 친구와 함께 몬자야키 전문점을 방문했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했다. 점원은 철판 위 묽은 반죽을 풀어 놓더니 작은 주걱을 건네며 익어서 철판에 늘어붙은 부분을

조금씩 긁어 먹으라고 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싶었지만, 익숙해 보이는 일본인 친구를 몇 번 따라 하다 보니 어느새 철판을 굽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몬자야키 또한 그 이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몬자야키(文字焼き)'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문자'+ '구이'가 된다. 이름만 들어보면 다소 생소하지만, 이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난 속에서 배급받은 밀가루를 나누어 먹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적은 양의 밀가루에 물을 많이 섞어 반죽을 묽게 만들어 철판에 굽다 보니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그사이 익어가는 반죽 위에 글자나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식재료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쿄, 특히 쓰키시마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 잘 어울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은 '몬자야키의 성지'로 불리며 수많은 전문점이 모여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지만, 오사카 지역에서는 든든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오코노미야키가 되었고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몬자야키가 되었다. 같은 재료라도 지역의 역사와 생활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속이 쓰린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하나



김서현 (유통&라이프부)

늦은 밤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응급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다음 날 병원의 문을 열 때까지 증상을 완화할 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토·일요일과 공휴일, 심야 시간대에도 문을 여는 공공심약국이다. 현재 전국 공공심약국은 170곳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제주도에는 단 1곳만 운영되는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집 근처 편의점이 꼽힌다. 정부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만 3000여 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종이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제품이 단종되면서 실제 판매 품목은 11종까지 줄어든 상태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지사제와 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조치는 단종 품목을 정비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판매 데이터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심야와 휴일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U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의 절반 이상(50.5%)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발생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매출 비중도 평일보다 높았다. GS25 역시 심야 시간

대 판매 비중이 57.2%로 절반을 웃돌았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성이 최우선인 만큼 편의점 판매 품목을 늘리기보다 공공심약국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편의성과 의약품 안전성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 폭넓게 판매하되 성분과 용량, 포장 단위 등을 세분화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무조건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반대로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seo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8일 (음 5월 2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길함과 흉함이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60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겠습니다. 84년생 힘들게 이룬 일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49년생 후배들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세요. 61년생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73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85년생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50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세요. 62년생 희망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4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나 조심하세요. 86년생 남의 재물을 함부로 탐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51년생 여행은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떠나세요. 63년생 가벼운 기분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75년생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87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한동안은 미루세요.



52년생 서쪽방향은 길하지 못합니다. 64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76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8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3년생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65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곧 이룰 것입니다. 77년생 작은 근심을 이제 버려주세요. 89년생 달빛이 하늘에 환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밝고 환합니다.



54년생 멀리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66년생 당신의 소질을 보여주세요. 78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90년생 숨겨 놓은 기술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55년생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67년생 사람들과 다투면 좋지 않습니다. 79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91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되도록 참으세요.



56년생 모든 일에 피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습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게 되니 마음이 아픕니다. 80년생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92년생 사치를 삼가하세요.



57년생 너무 거만하지 말고 겸손히 지내세요. 69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8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3년생 고집을 피우지 말고 주변 조언도 들어보세요.



58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70년생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82년생 정신을 맑게하세요. 94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59년생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71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83년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5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패가망신



패가망신은 집이 망가지고 몸을 잃는다는 뜻이다. 집이 망가진다는 것은 집안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따라서 몸을 망친다는 뜻이지만 단순히 망친 재산이 다 흩어져 빈한해지는 것을 떠나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나 업적도 함께 쓰러짐을 의미한다. 당나라 때 사람 유변(柳岍)은 어사대부관 관직에 있었는데, 그의 가문은 많은 명사를 배출했고 특히 유변은 예법에 탁월하여 '유씨 가훈' (柳氏家訓)을 남겼다. 이 글에서 그는 명문대가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패가망신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모두 귀 기울일 만 하다. 첫째는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둘째는 유학(儒學)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없이 옛사람들의 도덕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는 것, 셋째,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면서 멀리하고, 자기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넷째, 빈둥거리며 놀기를 좋아하며 나태하게 지내는 것, 다섯째는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기 위해 남몰래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아부하며 지내는 것을 얘기했다.

덧붙이기를, "나는 지금까지 명문가들이 흥하고 망하고 융성하고 쇠약하게 되는 과정과 원인을 보아왔다. 그 명문가들은 모두 조상의 충성과 효도, 그리고 근검절약으로 쌓아 올려졌다. 그러나 또한 자손들의 모질고, 경솔하며, 사치하고, 오만한 행동으로 모두 멸망한 것이다. 쌓아 올리는 어려움은 하늘을 향해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그러나 멸망하게 하는 일은 타오르는 불 속에 깃털을 던져 태워 버리는 일처럼 간단하다. 이와 같은 흥망성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다. 너희들은 이를 헛웃음이 새겨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한다. 쌓아 올리는 어려움은 하늘을 향하여 오르는 것처럼 힘들지만 떨어지는 것은 불 속에 깃털 타듯이 순간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오는 10월부터 '영어유치원·7세 고시' 레벨테스트 막힌다

교육부,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시험·평가 행위 구체화 입법예고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금지



교육부.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입학시험이나 수준별 반배정 시험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면접·실기,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학원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구체화했다.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의 학습능력이나 선행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해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금지된다.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에서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요구하거

나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선발·분반 테스트 관행을 겨냥한 조치다. 학원들이 입학 전 아이의 영어 수준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해 온 레벨테스트나 면접,

발표, 과제 수행 등이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 목적이라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영어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이뤄지던 유아 대상 평가 관행은 오는 10월부터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초등 영어학원 입학을 앞둔 7세 유아들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7세 고시는 통상 초등학교 입학 전인 10~12월 영어학원 등록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 학원법 시행일이 10월 1일인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유아 대상 입학·분반 목적 레벨테스트는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이번 규제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아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학원 등은 진단의 목적, 내용, 절차, 결과 제공 방식,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를 점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모집·선발이나 분반 목적의 평가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상담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재 기준도 신설된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개정 학원법 시행령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졸 취업 역량, '직업공통능력'으로 인증

교육부, 직업계고 3학년 5.8만명에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 실시
체계 강화해 교육·채용 현장서 활용

교육부가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기존 '직업기초능력 인증' 명칭을 바꾸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디지털배지와 실물배지를 제공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인증 활용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직업계고 569개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7일부터 9일까지 학교별로 진단이 진행되며, 10일은 미응시 학생을 위한 예비일로 운영된다.

이번 진단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운영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지정된 PC를 활용해 인터넷 기반 평가시스템으로 응시한다.

평가 영역은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능력 등 5개 영역에서 총 342문항을 평가한다. 문항은 직무 상황과 실무 맥락을 반영해 학생들의 직업역량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교육부는 인증 결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 진단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채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응시 학생에게는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를 수여하고,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학생에게 실물배지도 함께 제공한다.

인증진단 결과는 직업교육 연구에도 활용된다. 교육부는 인증 자료를 분석해 처리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특성 분석, 교육과정 개선, 직업교육 정책 효과 분석 등에 활용된다. 자료는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에 통해 관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공통능력 인증이 학생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고, 기업에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역량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활용도를 높여가겠다"며 "진단 결과가 학교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취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AI 세무·회계 창업대회 '대상'

회계학과 학생 구성 'C&C' 팀
'메디게이지' 플랫폼 출품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 회계학과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회계 창업 아이디어로 전국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순천향대는 회계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C&C(Code&Cost)'팀이 지난 4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 제59차 하계학술대회 중 진행된 '2026 AI활용 세무·회계 문제해결형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으로 수여됐다.

순천향대 C&C팀은 '메디게이지(Medi Gauge)' 플랫폼을 출품했다. 이 플랫폼은 의료기관의 재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원 간 상대 비교를 통해 경영 상황을 진단하는 서비스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경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순천향대는 이번 수상이 회계학적 사고



순천향대 회계학과 C&C팀이 지난 4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2026 AI활용 세무·회계 문제해결형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김우석·박민수 순천향대 학생, 장광희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 /순천향대

와 AI 기술을 결합해 실제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의료융합이 의학·공학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회계·경영 등 비의료 분야와 결합해 지역 혁신과 창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현진 기자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본격화

전담 TF 전문성·집행력 강화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인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투자공사 설립을 지원할 전담 조직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단장을 중심으로 총괄반과 펀드 설립반 등 2개 반,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설립 초기 2~3개월 동안 투자공사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절차에 착수한 뒤, 향후 조직개편 시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한 '단(團)'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

이다.

전담 TF는 공청회 개최와 법인 설립 등 투자공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총괄한다. 아울러 공사의 핵심 재원이 될 정책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시군 협업을 통한 재원 조달,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방안 마련도 담당한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관리·운영기관인 공사와 투자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격적 자금을 기반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자(子)펀드를 구성한 뒤 실제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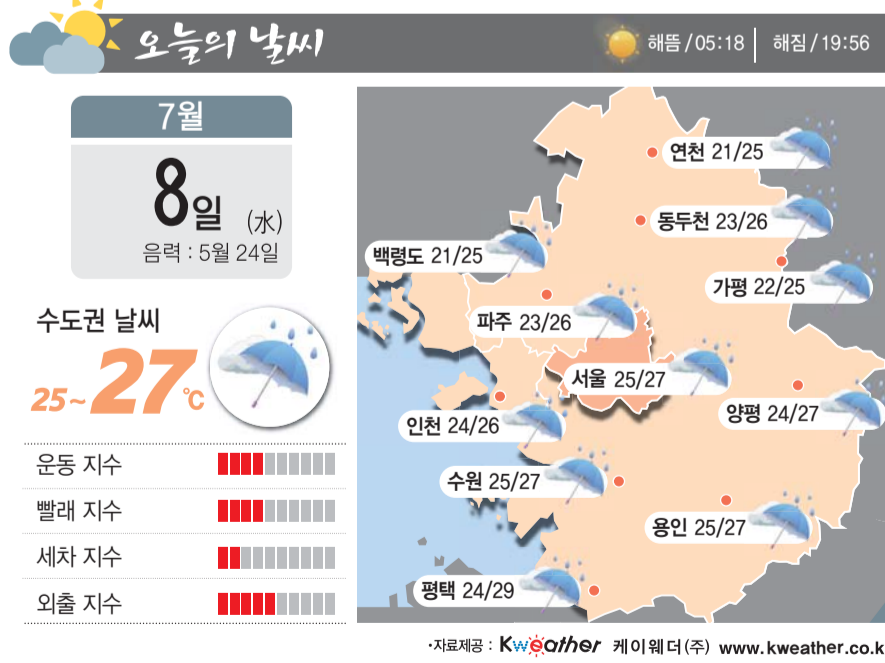
래 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등 지역 맞춤형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기업 투자 심사 과정에서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반영하고,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 거점 시군과 협력해 반도체 산업 성과가 전략산업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관계기관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설립 심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추미에 경기도지사는 "기금과 같은 단기적인 방식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며 "투자공사와 같은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 ▲NATO 가는 트럼프...유럽, '돌발 변수' 촉각 /사진 뉴시스
- ▲中 SLBM 발사에 日 "안보 환경 더 심각해져..." 안보 3문서 개정예 속

- ▲中, 대만 동쪽 필리핀해 조사... '잠수함 작전' 전 초전?
- ▲해외 에볼라 확산... 질병청 "입국자 감시 강화"

- ▲쿠바 전국 정전으로 또 암흑시대...비축연료 바닥, 전력망도 훼손
- ▲"호르무즈 해협 인근서 유조선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화재 발생"



얼어붙은 소주시장
로컬·특화 콘셉트
판도 변화
L1



Life

K-팝이 키우고
기술력으로 완성
헤어제품 고공행진
L2



소통으로 풀고, AI로 혁신... 고준위 방폐물 대장정 이끈다

〈방사성폐기물〉

CEO 와칭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원자력 발전의 글로벌 '제2 중흥기'가 도래하면서 선행 주어진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의 최종 마침표라 불리는 후행 주기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방폐물 관리를 책임지는 최종 사업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조성돈 이사장(사진)이 있다. 취임 첫째 경영평가 'D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던 조 이사장은 특유의 소통 경영과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이듬해 'C등급',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B등급'까지 매년 한 단계씩 향상을 이뤄냈다. 조 이사장은 "AI의 발전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제2의 중흥기를 시작하며, 각국이 원전의 신규건설을 밝히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 중이고, 선산산업의 발전과 함께 원자력산업의 마침점이라 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분야 또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돈 이사장 프로필

- 1959년 강원 평창 출생
- 환일고 졸업
- 광운대 무역학 학사
- 한국외대 해운경영학 석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략기획실장·성과관리실장·기획조정실장
- 경영본부장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경영평가 D→B로 끌어올린 리더십 '원자력 마침점'인 방폐물 사업 박차 고준위 방폐물 사업, 소통전략 펼쳐 소통 콘서트 개최 등 해외사례 참고

◆ '73조 대장정' 고준위 사업의 마중물은 '주민과의 소통'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은 2060년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하 500m 깊이의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73조 원에 달한다. 지난 2024년 12월 강원도 태백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25년 3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의결과 독립적 추진체인 고준위 방폐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며 사업은 본격도에 올랐다.

조 이사장이 꼽는 고준위 사업의 시작은 '소통'이다. 공단은 지난달 25~26일 서울에서 OECD/NEA 및 해외 6개국(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캐나다)의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 국내의 지자체장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고준위 방폐물 소통 콘서트(SaRaM)'를 개최했다.

오는 2027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공모' 절차 착수를 앞두고, 이미 부지 선정을 완료했거나 처분장 운영을 앞둔 선진국들의 실제 부지공모 참여 경험과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문헌조사를 추진했던 두 개 지역의 주민들이 연사로 나서 주민 입장에서 소통의 가치를 공유했고, 각국 관계자들은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과 정책적 측면의 제언 사항을 공유하며 힘을 보탰다.

실제로 핀란드는 2001년 올킬루오토를 최종 처분부지로 선정 후 건설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 시설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웨덴은 2009년 부지선정 완료 후 2025년 1월 건설에 착수했고, 캐나다와 스위스, 프랑스는 부지 선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조 이사장은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추진을 앞두고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로부터 소통 경험을 공유했

다"며 "내년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공모를 앞둔 한국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시사점과 고려사항을 알게 해 준 소중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 중저준위 방폐물은 AI 혁신... 업무량 절감

조성돈 이사장의 또 다른 경영 축은 'AI를 통한 지속적 혁신'이다. 공단은 중저준위 방폐물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사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용물 자동판정 프로그램'을 방폐물추적관리시스템(WTS)에 적용했다.

AI를 활용해 발생자가 제출한 18개 이상의 자료에서 방폐물 검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데이터 입력을 자동화하고, 입력 데이터 간의 정합성을 확인해 인수기준 만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량의 방폐물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했다.

혁신의 성과는 수치로 입증된다. 과거 기준 8만3500개 이상의 데이터 검토와 서류 검사에 4명의 인력이 1개월간 매달려야 했던 업무가 AI 도입 후 단 2일 만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데이터 추출부터 인수 판정 만족 여부 확인까지 걸리던 기간은 최대 88시간에서 단 30분으로 대폭 감소하며 무려 99.4%의 업무량 절감 효과를 거뒀다.

AI·빅데이터 활용한 지속적 혁신 앞장 인수검사 AI 도입... 99.4% 업무량 절감

내년, 방폐장 부지 공모... 2060년 완공 원자력 안전한 순환시설 구축 노력할 것

◆ 2027년 부지선정 공고 후 13년 이내 완료 과제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4월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이 고준위 위원회로부터 확정돼 부지공모 시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 기술기준 마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차년도에 부지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2060년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하 500m의 깊이에 영구처분 시설 건설을 목표로 총 73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3년 이내에 부지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는 일정이다. 이 모든 대장정의 출발점은 2025년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마련됐다.

조성돈 이사장은 "원자력의 최종 마침점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라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은 순환시설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발전에서 처리와 최종 고준위 처분까지의 안전한 고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수저장건물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 모습.
2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제9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원전환경공단



▲김기동·윤정환·벤투...홍명보 떠난 한국 축구 사령탑 하마평 무성
▲벤투 감독, 韓대표팀 복귀 타진...“축구협회에 관심 전달” /사진 뉴시스

▲‘홍명보 선임 주도’ 이임생, 캄보디아 구단 기술 이사 부임
▲정몽규 시대 막내린 대한축구협회...후임 선출 어떻게 되나

▲고우석 ‘빅리그 데뷔’ 임박...미네소타, 로스터 정리 끝
▲이정후,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시즌 타율 0.315 유지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